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말씀으로 진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기를 약속을 말씀으로 보내주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지상에 말씀의 집인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지시하는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집이 되고 말씀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 사도행전의 교회를 말씀의 열매로 향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저희가 남마다 성전에 있든지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5장42절, 6장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3월 1일 (토) 제 147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으로 소명 찾기 도와야

바나리서치, 미국인들 직장에서의 소명의식 설문 조사

크리스천들은 쉽지 않은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직장은 삶의 현상이자 일터이며, 동시에 불신자로 가득 찬 황금어장이다. 따라서 교회공동체에서는 크리스천들을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정체성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비시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목회 대안으로까지 이미 등장했다.

바나리서치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미 전역에서 성인 4,495명을 상대로 전화와 온라인 설문 조사 조사(95% 신뢰도에 +/- 3.1의 오차율)를 통해, 이들 중 75%는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Three Trends on Faith, Work and Calling).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은 가정, 직업, 교회에서 소명을 통한 의미 추구를 통해 삶을 충만하고 운명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라면,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 라는 물음이 지극히 자연스런 물음이다. 그러나 크리스천들 중 40%만이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과 소명이란 물음에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교회공동체라는 기존의 "제도"에 익숙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밀레니엄들 중에서는 48%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들을 훈련시켜,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가정이나 일터에 보낸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인들에게 직장이나 가정 일이 소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회 프로그램 개발이 촉구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과거에 비해 엄청 변화된 직장과 경력관에 혼란을 느끼고 있지만 적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실제로, 변화되고 있는 경제 체제는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첨단 기기들의 도움을 받아 작업 능력을 뒷받침해주기에, 직장 과 가정 즉 직장이 아닌 가정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젊은 미국인들은 3년 이상이나 기존의 단일 직장에서의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9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기존의 정상적인 직업은 이제 서서히 부차적인 직업 선택이 되고 있는 중이다.

우이나 안정감을 주고는 있지만, 목적이나 의미 그리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2-3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세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 성인 10명 중 6명은 세상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미 성인 10명 중 5명은 자신의 직장 선택이 잘못된 경력을 쌓는 일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다.

바나리서치는 이번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성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찾아냈다. 즉 균형 잡힌 시간, 바로 성경적인 토대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직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성인 중 19%만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미국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만족할만한 의미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

답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 성인 여성 중 59%는 자신들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스트레스(72%), 피로(58%) 그리고 지나친 일에 대한 부담감(48%) 등으로 자신들의 삶이 황폐하다고 여기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만 수치는 가정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들 경우에는 더욱더 상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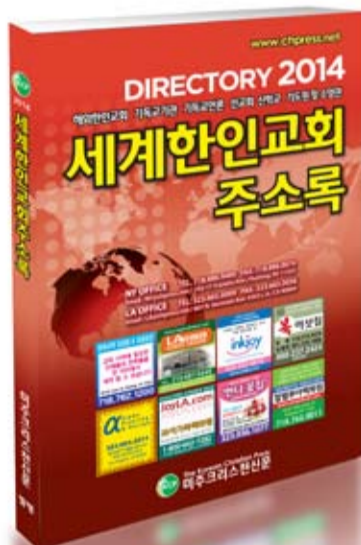
여성들의 삶에 대한 불만수치가 남성에 비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연코 "일도 해야 하면서 가사, 육아까지도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 단연코 압도적이다. 그런데 여성들의 시각으로 볼 때, 42%의 여성들은 교회가 어떠한 정서적, 사회적 후원을 전혀 자신들에게 베풀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들은 불만수치가 하향된다. 46%의 크리스천 여성들이 교회에서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도움을 받고 있고, 34%만이 어떠한 도움이나 후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2014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4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서적 (718)762-1200
할렐루야 기독교책점 (718)762-0011
할렐루야 기독교책점(NJ) (201)373-002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 (714)636-7430
복음사 (562)865-4949
생명의말씀사(LA) (213)382-4538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교책점 (323)766-8793

▶ 기타지역

커네티컷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일리노이 시카고기독교방송국 (847)583-0191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볼티모어교회 (410)337-9448
버지니아 주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번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계사 (704)332-5656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2면

예배 후 내 영혼에 전능자의 침묵 깃들도록



7면

아브라함 카이페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SCW원장)



9면

리처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 조진모 목사(필라델피아연합장로교회)



16면

베데스다대학교 찬양선교단 창단 및 열린음악교육원 개원



KIM Mission 제45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II 샌 안토니오 세미나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MBC대리교회) 김윤환 목사 (미국군복, 대령) 이영섭 목사 (계명장로회신학 학장) 김승년 목사 (베트루기안사역교회) 강태광 목사 (TN 생명수교회) 박영택 목사 (CA NewLifeMission) 손찬식 목사 (SD 삼일교회) 황인철 목사 (NY 에빙턴교회) 김용식 목사 (성북영장로교회)

[대표] [이사장] [전임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바나바스김 선교사 (미국군복) 임이근 장로 (스페인, 퀘벡) 최도은 박사 (치과의사, 달라스) 강태원 장로 (비즈니스, NJ) 송하균 장로 (비즈니스, MD) 류지훈 대표 (사광, NY) 황정규 집사 (비즈니스, NY)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SA세미나장사]



손동우 박사 (비즈니스, NJ) 정정원 박사 (WMRD부사장, WA) 이광현 안수집사 (C Global대표, NY) 이원구 안수집사 (삼운개발, 서울) 임재원 집사 (K&S 대표, 라오스) 임소영 자매 (간호사, NY) 강동철 집사 (비즈니스, AZ) 김문신 장로 (볼티모어MP부회장)

* 연락처: 김 미션 본부 (626. 354. 2294 혹은 213. 215. 9834)

[KIM Mission 소개]

KIM Mission은 지난 13년간 미국과 전 세계 선교지에서 진행 되어 온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들의 제2의 헌신 공동체입니다. 김 미션은 이 MP 세미나 보급을 통해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며 미주한인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현장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MP세미나를 통해 헌신된 평신도 비즈니스맨 등이 주축이 되어 섬기지만, 동시에 한인교회를 선교비전으로 이끄시는 사역 멘토 목사님들의 멘토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13만명 이상이 수료한 세계적인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 가운데 KIM Mission은 13년간 44차례 한국어 세미나를 통해 360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미주 30회, 선교지 14회), 약 30여명이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인도차이나 3개국 (3차례) 순회 세미나, 2012.1 볼티모어 세미나 그리고 2013. 11 라오스 비엠티안 세미나에 이어 이번에는 텍사스의 중심 도시 샌 안토니오에서 제45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앞으로 김 미션은 세계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으로 조망해 주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의 미국과 전 세계 선교지 및 디아스포라 한인사회에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www.KIMMission.org참조)

KIM Mission제45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II 텍사스 샌 안토니오 세미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세계선교)



- 기간 및 장소: 2014.3.21-23+3.28-30 (2주연속 주말 3일간: 금 7:30-10pm, 토 9:30-4pm, 주일 2-4pm 전체16강; 등록비, 교재비, 점심, 간식, 수료증 포함 50불)
- 주최 (장소): 샌 안토니오 은누리교회 (담임 박한덕 목사님, www.onnurisa.com)
- 강사: 바나바스김경환 선교사(KIM Mission 대표, 10년간 목회 사역 후 15년간 국제OM선교선도론 전문부장, 훈련부장, 오렘캠 대표, 현 미육군 군목), 최도은 안수집사 (김 미션 초대이사장, 치과의사, 달라스), 김문신 장로 (MP볼티모어교회 세미나 수료자)

* 최신판 영어교재를 완전 번역한 한글 MP교재 -요약 해설집 및 컬러 파워포인트 교재 제공

"나는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피터 와그너 박사(전 플러신대원 교수)

"교회부흥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선교에 눈뜨는 일이다. 선교를 향한 4방향(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시야를 활짝 열어주는 세미나가 바로 이 세계 선교 조망 세미나입니다." - 장동찬 목사 (KIM Mission Chief Ministry Mentor, 베다니교회, NJ)

"이제야 저는 선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선교를 제대로 하기 원하면 교회라면 교역자는 물론 모든 선교 실행원들이 반드시 이 세미나를 들어야 합니다!" - 서택희 집사 (KIM Mission 후원회원, 초대교회, NJ)

"이 세미나는 강의를 들으면 들을 수록 더 세계 선교가 한 눈에 들어오고 구체적인 전략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 강태원 장로 (KIM Mission 부이사장)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협찬: 기독교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www.oMyGod.us, MP 세미나 국제 동문회, KIM Mission 이사회 & 후원회



시론

그 사람을 가진 그대와 세상은 행복이여라!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제가 시무하고 있는 뉴욕 롱아일랜드 참 사랑교회에 출석하는 한 청년 자매가 줄리아드 음악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지난주에 바이올린 졸업 연주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청년 자매와 대화를 나누던 중 스승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이 와 오늘 지면으로나마 간략히 소개하려 합니다.

그 분은 1987년부터 줄리아드 음악학교 교수님으로 계셨고 1994-2007년 학장을 지내신 Stephen Clapp 교수님이십니다. 코네티컷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지난 수년간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의 열린 공간에서 지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줄리아드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30분에 자기의 레슨실인 541호실에서 부임 후 지금까지 아이들과 더불어 기도모임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줄리아드 학교의 크리스천 헬로우시 그룹인 Juilliard Christian Fellowship과 Korean Campus Crusade for Christ를 오랜 기간 후원해주시고 어드바이저advisor로서 서포트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레슨 중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주시면서 항상 재킷 안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셔서 중보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기도해주실 것을 약속해주셨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매년 학기 초반 되면 코네티컷에 계신 선생님 15명 남짓 되는 모든 제자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해주시고, 오고 가는 차편까지도 손수 부담해주셨다고 합니다. 학기 말엔 꼭 학교 옆 선생님 단골음식점에서 점심으로 학기의 마지막을 축하해주셨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지난 2010년 학기말 즈음 학생들에게 폐암이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지난달 1월 29일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직전 한주일 전까지 3년 동안 사모님과 따님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시고 혼신을 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붙들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기도해주셨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크렘 교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들려지도록 최선을 다해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냥 줄리아드 음악학교의 바이올린 교수로만 잘 가르치며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이 존경 받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 결과 크렘 선생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많은 제자들과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되어가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이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주는 자매의 고백이 오늘 저의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더 강하게 제자들 가운데, 학교 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느껴져요. 오늘 제 졸업연주회에 하나님과 교수님을 마음에 떠올리며 그분께 들려 드리고 싶어요" 이미 크렘 교수님은 줄리아드 음악학교와 그가 생령처럼 아꼈던 제자들과 그를 만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이 시대에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전 인생을 진솔하게 "살"으로서 예수를 전하신 작은 그리스도(Small Christ)이십니다. 마음 깊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문득 그 함석헌 옹의 시 한편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가 떠오릅니다.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놓고 갈 만한 사람/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뒀던 배 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 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느 때인가, 어디에서인가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진 그대는 행복이여라. 그 사람을 가진 세상도 행복이여라. 그대를 가진 세상도 행복이여라. 크렘 교수님을 가진 그대는 행복이여라. 크렘 장로님을 가진 세상도 행복이여라. 크렘 장로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사는 그대를 가진 세상도 행복이여라. 천국에 계실 크렘 장로님을 그리 봅니다.

“예배 후 내 영혼에 전능자의 침묵 깃들도록”

리더십저널, 고든 맥도널드 목사의 온전한 예배상 구현을 위한 제안(2)

전세계 목회자들의 멘토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고든 맥도널드(Gordon MacDonald) 목사는 크리스치니티투데이에서 발간하는 "리더십 저널"의 메인 기고자로, 자신의 크나큰 성공과 쓰디 쓴 실패를 모두 경험한 그의 오랜 체험에서 나온 진국 같은 조언들로 항상 목회자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함께 영감을 제시해준다.

40년 이상 목회한 결과 그는 자신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을 목회현장에 적용시킨다. 강의나 세미나로 공향 이용이 많은 그가 공향 검색대에서 경험한 '스캐너' 검색 역시 예배에 적용돼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준다(If I Had a Scanner, How would our worship services be different?).

몇 년 후 나는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에서 물러나 여느 교인처럼 회중석에 앉아 있어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부부는 회중에 목말라 있었다. 내 친구의 말대로 나는 "영혼을 깨끗이 씻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았다. 예배 인도자들은 스캐너가 없었다. 그들은 회중석에 앉아 있는 교인들이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했다. 그들의 기도는 우리의 사정에 어두웠고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윤택을 역할만 할 뿐이었다. 노래도 건성으로 정한 듯했다. 설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반기는 교우들이 내 가족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강해지길 바란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유익하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인색하지 않게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확신하고 싶어요."

한 남자가 말했다. "저요? 어서 빨리 예수님을 좇아 세상으로 나

예배한 교인들이 어떤 상태로 교회 떠나야 할지 목사는 알고 있어야

예배 후 회복과 목적과 감동 되찾고 교회 나서게 하는 목회 되도록

는 어땠는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는 것 같지 않았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차로 돌아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차라리 집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정문에 스캐너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한 후 몇 주 동안 나는 충실하게 예배하는 교인들에게 물어 보았다. "교회를 찾는 교인들의 기본이나 영적 자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을 전문 조사 결과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

긍정적인 대답부터 살펴보자. 몇몇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교회에 온다고 말했다. 그들은 꾸준히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습관을 들이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

몇몇은 격려가 필요해서, 희망을 찾고 싶어서, 영명진장으로 보면 평일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서 교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좋은 것을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회의적인 마음으로 앞날에 대한 지도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교회에 온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나는 교회와 목사를 사랑하고 영혼의 평안을 얻어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람이 많아서 마음이 뿌

듯했다. 그들에게 교회와 예배는 최고의 가족을 만나는 안전한 장소를 뜻했다.

하지만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 스캐너처럼 자세히 살펴서 아픔과 두려움을 알아본 사람의 본능적인 행동.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피로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그들은 영혼과 마음, 심지어 몸이 탈진한 상태였다. 인생은 그들에게 조금도 실 틈을 주지 않았다.

몇몇은 결혼 생활이 뼈저려서, 자녀가 탈선해서, 상사나 동료가 괴롭혀서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년들은 결혼과 직장과 부채의 뒷에 걸려 움푹달라지듯 못하겠다고 말했다. 음식, 술, 약, TV 등에 중독됐음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다.

사람들은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다. 아무도 모르는 약습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두렵다는 말도 자주 했

다. 돈 없는 노후가, 나빠지는 건강이, 실패할 게 두렵다고 했다.

나는 교인들이 어떤 상태로 교회를 찾는지 알고 난 후 이런 생각도 들었다. 한두 시간 예배한 교인들은 어떤 상태로 교회를 떠나야 할까? 모든 목사와 예배 인도자는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앞서 내 친구는 깨끗하게 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혼의 목욕'이란 말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데 목욕을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교인들은 예배 후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나는 교인들에게 다시 물었다.

"교회를 나설 때는 영적으로 깨끗이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음이 편하고 담대하고 강인해지고 싶어요."

가고 싶어서 출구가 혼잡하면 벽이라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은 교인들의 영적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받아들여 할 분부다. 우리는 60-75분 동안 다양한 처지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교인들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눈으로 크고 빛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예배다. 우리는 교인들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자비롭고 강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새로운 감동으로 만나길 바란다. 우리는 교인들이 마음을 성찰하고 예수님의 자비로운 빛을 받아 죄를 인정하도록 재우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 (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성경구절은?

CT, 10대 인구대국 성경 웹사이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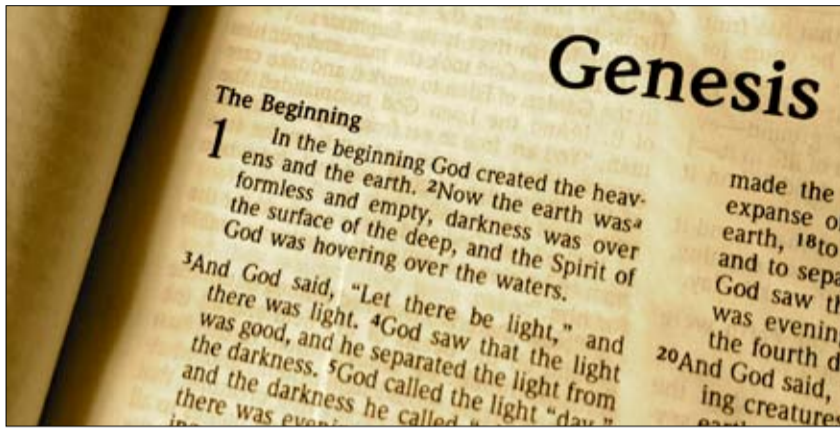
성구나 말씀 이질 생각하지 않을 때, 인터넷 상에서 단어만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성경 구절 찾기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기에 어쩌면 현대인들은 더욱 더 쉽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산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거나 선호하는 성경말씀은 무엇일까?

크리스챤티티투데이는 기독교포탈사이트 BibleGateway.com을 인용, 지구촌 10대 인구대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경 찾기 웹사이트들을 조사한 결과 시편 23편 말씀이 가장 즐겨 찾는 성구라고 밝히고 있다. BibleGateway.com은 성구가 잘 생각하지 않을 때, 단어만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성경 구절 찾기 프로그램이다(How the World's Top 10 Countries Search the Bible Differently: Are pastors preaching Paul too much and Old Testament too little? Leading Bible website analyzes top verses searched by millions worldwide).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성경 말씀은 단연코 시편 23편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창세기 1장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지구촌에서 인구 대국이다. 이슬람이나 불교권의 영향력 때문에 즐겨 찾는 성경 말씀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러나 "시편 23편" 말씀은 10개국



시편 23편...창세기 1장, 고린도전서 13장 뒤이어 이슬람권 사이트에서도 자주 등장...선교의 청신호

에서 5개 성경 찾기 웹사이트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창세기 1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1장부터 읽는 성향 때문에 창세기 1장(성경을 읽겠다고 결단하는

이유도 있다)이 소위 "사랑" 장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은 예상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

2013년, 242개국에서 세계인들 중 92%는 인터넷에 접속하고 검색을 통

해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찾고, 읽고, 비교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무려 7천6백만 시간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 중 1/3은 미국 사이트들이 아니라 사실이다.

자국의 사이트가 아닌 다른 국가의

사이트를 통해 성경을 보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영어권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또한 비영어권인 멕시코, 콜롬비아에서도 타국 웹사이트를 통해 성경을 보고 있다. 그리고 세계 10대 인구 국가 중에서는 미국만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세계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단일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10대 인구 국가 중에서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인도에서만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시편 23편은 물론 10대 국가에서 애용되는 말씀이지만, 특이하게도 이슬람권인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그리고 방글라데시 웹사이트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미 "오픈도어"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파키스탄(8번), 나이지리아(14) 그리고 방글라데시(48)로 선정했고, 퓨로프 리서치에서도 이들 국가를 세상에서 종교 즉 기독교 적대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로 선정했기에, 시편 23편 말씀이 애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선교에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세계 10대 인구대국들에서 즐겨 찾는 성경적 단어들은 "안내", "하

남", "위로", "말씀", "희망", "강건", "시작", "도피처", "자비" 그리고 "사랑" 등이었다. 따라서 사랑, 희망 그리고 강건은 이들 나라에서 빈번하게 찾고 있는 주요한 단어들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입양을 통한 소명(성)을 계발하는 데는 동의한다. 따라서 가르침과 동시에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 입양되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데려오는 여행비 그리고 생계비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응답한다. 결국 이러한 입양을 통한 크리스천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입양 도움이나 포스터 케어 후원이 미국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조웨트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의 한 할아버지가 해줬던 말을 기억한다. 할아버지는 예배 후 경건하게 엎드린 자신의 영혼에 전능자의 침묵이 깃들도록 조용한 셋길로 혼자서 집까지 걸어간다고 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무능한 것이다."

스캐너가 있으면 "당신"의 교우들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지 상상해보라.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바울의 교회론

교회론의 태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이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지만 교회 신학과 이론을 정립한 것은 바울에서 시작된다. 다른 사도들이 부분적 교회론을 논하였다면 바울은 통전적 교회론을 강조했고 바른 교회론을 제시했다. 그것은 그가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들을 목회했던 실천의 산물이었다. 바울의 신학 세계는 깊고 넓다. 신론(神論), 인론(人論), 기독교론,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은 물론 정치, 사회, 가정, 결혼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교훈으로 당시 교회들을 가르쳤다.

특히 그의 교회론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관계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부부란 전혀 다른 타인끼리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따져보면 부부란 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 얼굴, 키, 무게, 취미, 전공, 가문, 부모, 형제, 인격 그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게 없다. 그토록 다른 두 사람이 어느 날 결혼이라는 관문을 거쳐 부부가 된다. 부부는 한 몸이지만 밥도 잠도 외출도 따로 일 때가 많다. 그러나 부부란 돌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신비 속을 거닐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

부부란 각각 다른 요소들로 에워싸여 있더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견디기도, 살아가기도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을 피 흘린 것처럼 아내를 위해 희생을 감행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교회는 그리스도를'이라는 공식처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해 된다는 것이다.

바울의 교회론의 또 다른 특징은 한 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인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은 교회론의 기둥이다.

필자는 바울의 교회론을 따르기에 교회 안에서 통용하는 '수석 목사님', '수석 장로님' 하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수석'이라니 언제 누가 어떻게 수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예수 말고 누가 어른이 될 수 있으며 머리가 될 수 있는가? 한국 교회의 병폐는 저마다 꼭대기에 오르려는 데서 비롯된다. 저마다 주인이고 수석이면 좋은 누구이며 쪼리는 누구 여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유기적이며 생명 공유의 관계다. 그리고 절대 불가분리의 관계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생각도 분별도 못한다. 그래서 명색이 교회라지만 못할 것이 없다. 머리가 없기 때문이다. 머리는 하나님께 손가락 발가락이 저마다 머리라며 싸움판을 벌인다면 그건 조직의 가나다 순서도 모르는 사람들의 짓이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바울의 교회론으로 관조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손톱, 발톱, 솜털이 몸뚱이 머리를 싸잡아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회의 자정 능력은 한계가 있다.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듯 정결케 하셔야 한다. 교회 자체의 개혁이나 갱신은 또 다른 개혁과 갱신을 요청받기 마련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는 고치고 새롭게 하는 역사도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한다.

(1면에서 계속) 따라서 여성들은 교회에 희망을 건다. 만족할만한 후원이나 도움을 현재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들 중 22%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중 24%는 교회공동체가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적절하게 다가선다면, 여성들의 불만지수는 교회를 통해 상당수 하향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특히 소

명이자 청지기라는 성경적 소명의식의 가르침과 계발을 통해 여성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이를 충족시키거나 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은 "입양"을 일종의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소명이란 차원에서 입양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77%) 그러한 선택을 통해 소명을 받았다고 응답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 입양에서 입양이나 포스터 케어 또는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론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일들이 일종의 소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들을 서로 연계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책임감으로 계발시킬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특히 입양을 통한 관계 형성이 소명이라는 점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들도 아직은 많지는 않다.

(2면에서 계속) 남녀노소가 살면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 교인들이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우리는 교인들이 한 주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심을 깨닫게 돕는다. 물론 우리는 교우들이 서로 교체하고 응원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끝으로, 우리는 교인들이 십자가로 나아가 영생에 이르는 화해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런 교회

가 많을까? 교인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았다가도 회복과 목적과 감동을 되찾고 교회를 나서게 하는 목회 가능할까? 목사와 예배 인도자, 장로들이 물어야 할 물음이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같은 물음으로 고심했던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존 헨리 조웨트는 이런 글을 남겼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우리의 얼굴에서는 표현할 길

이 없는 깊은 감동을 엿볼 수 없다. 경쾌한 노래를 불렀는데도 거리로 나간 우리의 얼굴은 극장과 공연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과 '비슷하다.' 우리가 굉장한 것을 보았다고 짐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내가 상상했던 스캐너 같은 게 정말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교우들을 두루 만나고 그들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해주길 믿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미주오순절연합 총회

교회가입 및 전도사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4년 본총회는 4차원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목회자육성및선교와상호협력목회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 (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남,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 (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4) 목사안수
 - ① M.A., M.Div sms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 ② B.A sms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 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에베소서 6장 2절
- 3) 설교: 자율적으로 1편 제출 (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 (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 (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 (소정양식)
- 4) 신앙명세서 (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 (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4. 제출기간

2014년 2월 28일까지

5. 기타

4차원영성 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 가능함(총회 조용기 목사) 봉사 및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연계한 사회구체 활동) 교제와 교류 (정기모임 Net-Work 형성 한국-미국)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 318-9521 / 최명상 목사 (323) 317-3749

미주 오순절 연합총회(구 순복음 북미수호총회) 총회장 김두경 목사 총무 석종규 목사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그럭저럭 사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 보노라면, 3년 전 소전하신 옥한 흠 목사님이 문득 그리워집니다. 하늘 분향에 가시기 전에 옥 목사

님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유언 같은 말을 남기면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 침체가 아니라 교회 본질이 파괴되는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머리카락이 모두 잘린 삼손과 같아서, 블레셋에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멧돌을 돌리며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의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탄식하셨습니다(삿16장).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배당 건물만 지어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너무 안일했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게으름 피는 습관'에 깊이 젖어들었습니다. 안일하게 지내며 1907년 평

양 대부분에서 부여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를 모두 소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예배의 감격도,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마음도 모두 식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차가워진 마음에 비대한 몸집에 게으른 습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게으름(sloth)을 죄로 취급하기보다는 달콤한 권리 정도로 여기면서, '영적 나태'의 심각성을 외면했습니다. 교만, 탐욕, 탐식, 정욕, 분노, 시기과 함께 '7가지 치명적인 죄'(seven deadly sins)에 속하는 '게으름'은 한국 교회를 강타하여 깊은 침체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침체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신자들은 열정을 잃고

세속주의에 휩쓸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작년 7월에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에서 성인 남녀 1594명을 대상으로 '꼭 고치고 싶은 자신의 습관'을 통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게으름 피는 습관'(68.1%)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을 벗어 던지고, 이제 일하십시오. 기도에 열정을 쏟으십시오. 부끄러워 기도하며 찬양에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어영부영 영거 주춤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각자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5:16,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2014년 한 해 동안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시다(롬12:1).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어진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주님을 위해 모두 불태우고 후회 없이 세상을 떠납시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은 '죄'입니다.

푸 / 른 / 초 / 장

김영환 목사
(뉴욕효성교회 담임)



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 온 것도 형들이 팔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것으로 믿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

둘째, 하나님은 나쁜 환경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나쁘더라도 더욱 부지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서 죄수 노릇할 때도 부지런히 뒷사람이 시키는 일

집하자고 집요하게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9)라고 말하며 이를 물리쳤습니다. 따라서 이 일로 인해 요셉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으나 공의의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시고 험통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서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영적 리더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서있을 때 우리도 요셉처럼 험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나쁜 환경에서도 일을 이루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공의로우신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성실하게 가꾸어 나가며 요셉에게 주어진 행동함을 체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의 믿음이 곧 내 믿음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데도 이만생활에서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받아야 했던 고난을 달게 받아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으로 연결되었음을 바라보면서 이에 위로와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형통케 한 믿음

(창세기 39:1-5, 19-22)

할렐루야- 어느새 일출도 지나고 밤이 코앞에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주위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았던 계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릴 적 눈썰매타고 눈사람 만들면서 마냥 좋기만 했던 시절이 아득하고 올해는 눈이 지겹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계절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도 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영적 거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뭄에 허덕이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전적으로 나섬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결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시련과 역경이라는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꿈꾸는 자는 시련이라는 물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의 변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만드셨

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말이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요셉

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2,3, 23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신 것은 그가 가진 사람됨의 조건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시련 중에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이라고 모두 꿈을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운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됩니다.

요셉은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했고,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날부터 철저하게 실력을 쌓았고 결국 보디발의 신뢰를 받았습니

다. 는 출세나 권력,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봉사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자의 위치에서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골4:13).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요셉의 믿음, 요셉을 형통케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일

을 주관하시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 또는 불평하지 않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1년에 6-7번 행사인 효도잔치, 효도관광, 추석맞이효도잔치, 크리스마스 및 명절 잔치 및 선물, 사랑의 쌀 나누기 등 이러한 일을 할 때마다 일단 일을 추진하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을 잘 순종하여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의 자리로 올려 세워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아시며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

말씀 부흥 대성회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아침)부터 3월 6일(목, 저녁)까지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213) 382-1450

|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조성근 목사 초청 부흥성회

| 일시 : 2014년 2월 21일(금) 저녁 7:30 22일(토) 새벽 5:30 저녁 7:30 23일(주일) 1부 8:00 2부 10:00

| 장소: 한인장로교회(담임 한재신목사) 1601. Art St. Bakersfield, CA 93312

| 문의: (661) 589-5791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세계적인 시선을 모은 가운데 말성과 요란한 소음이 많았던 소치 올림픽이 폐막했다. 소치올림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편안하지만은 않다. 한국이 동계올림픽에서 기대했던 등수에 들지는 못했지만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맹활약으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했다. 비록 메달권에 들지는 못해도 다음 평창 올림픽에 가능성을 보인 종목들과 선수들도 많았다. 수고를 축하하고 격려한다.

특히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 3개와 동메달 하나의 획득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은 기뻐하면서도 훌륭한 선수가 러시아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체육계의 내부 현실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일어났다.

한국인들과 많은 세계의 여론을 들끓게 한 것은 '윈 연아'라고 불리는 피겨의 여왕 김연아가 금메달급 퍼포먼스를 하고도

에도 올림픽은 강대국들의 정치적 선전장으로 전락되었다.

스포츠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스포츠에서도 잘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억울한 판정, 잘못된 판정, 의도적인 특혜 등은 4년 동안 올림픽 한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희생하며 준비한 선수와 함께 도와 준비한 모든 사람들을 난도질 하는 사회악이다. 예상은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고, 어린 선수 김연아는 의연했다. 자기는 올림픽에 참석한 것만으로 목적을 다했고, 자기의 마지막 대회를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실수 없이 마쳐서 감사하는 모습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성숙함을 보였다.

스포츠에 대한 성도들의 선호도는 다 다르다. 스포츠를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로 여기는가 하면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요소로 보기도 한다. 성경은 현대 스포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 자료는 보고 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주일날 하는 여러 가지 운동행사들에 대해서 매진 힘은 Christianity Today에 기고했다. 그녀는 일요일 스포츠를 지지하는 교회와 부모는 해결책을 찾았는지는 모르나 계속 연기되는 주일예배는 배워야 할 영적 교훈들을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스포츠는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고 상호협력, 건전한 경쟁, 체육 실력 향상에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중심의 주일은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하고 가장 교훈적인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일요일 스포츠에 과단성 있게 "아니오"라고 함으로써 영원을 위한 훈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스포츠가 미친 주일의 세속화는 분명하다.

미국의 스포츠의 성행과 신앙의 쇠퇴와의 밀접한 관계성은 분명하다. Chris Beneke와 Arthur Remillard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팀을 선택하고 그 팀을 따른다 했다. 미국인들의 스포츠 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어느 종교, 어느 신앙에 대한 소속감보다 더 능가한다 것이다. 캘리포니아대학과 듀크대학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종교적인 선호도가 없다가 말한 사람이 1990년도 8%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스포츠의 이상화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은메달을 받은 사건이다. 심판판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재심을 요구하는 change.org에 올린 피티션이 순식간에 2백만명 이상의 사인할 정도이었다. 전세계가 들끓었지만 정작 김연아 선수는 의연했다. 비록 무대 뒤쪽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을 NBC가 보도했지만, 선수 자신은 판정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주변보다 더 침착한 그녀의 모습 속에서 세계 최고의 경지에 이른 선수다운 내적 성숙함도 보였다.

김연아에 대한 은메달 판정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극했다. 다음 올림픽 평창에서 두고 보자! 로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와 같이 김연아에게도 금메달을 수여해야 한다는 등 수많은 제안과 복수국의 시나리오들이 나왔다. 이번의 사건은 주최국의 뒷세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옛부터 올림픽 경기의 금기사항으로 마약, 상업주의, 정치, 종교 등이 꼽힌다. 고대 올림픽 시절에 네로 황제는 5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대회에 참가해 전차경기와 자신이 고안한 경기종목에서 우승을 싹쓸이해 버렸다. 대회는 난장판이 됐고, 스포츠 행사가 정치에 오염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대량으로 귀화시킨 선수들로 정치적 선전을 하려고 한 스탈린에 비교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그 후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 총장인 Dr. R. Albert Mohler Jr. 슈퍼볼에 즈음해서 "The New American Religion: The Rise of Sports and the Decline of the Church"라는 글을 실었다. 스포츠는 미국의 새로운 종교라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의 부흥과 교회의 퇴락의 상관관계를 조명한 것이다.

미국의 스포츠계는 그야말로 슈퍼 비즈니스이다. 슈퍼볼 경기를 무려 1억2천만명이 관람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스포츠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미식축구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드린다. 그래서 스포츠는 미국의 새로운 종교이고, 축구는 가장 중요한 성례식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캐톨릭 추기경이었던 오코너가 지난 15년 전에 탄식한 말이 생각난다. 어린이 야구인 리틀리그가 바로 어린이들을 다 빼앗아버린다고 했다. 미국의 어린이 야구, 어린이 축구게임 그리고 수많은 스포츠 게임들이 주일날 행해진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했다. Religious Data Archive를 분석해 보면 어떤 교회는 주일에 성도수가 줄어들자 주일예배를 토요일에 대체하고 가족이 주일은 스포츠에, 토요일은 예배에 참가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더욱이 수많은 교회가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여 체육을 즐기는 가족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고

20%로 증가했다. 종교가 미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조사 난에서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자신들이 스포츠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한다. 2012년도에 60% 이상이다. 스포츠팬들의 증가와 동시에 교회출석율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급속도로 감소했다. Beneke교수는 현대의 스포츠 경기장의 기능은 마치 대성당이 가졌던 기능에 비유를 한다. 스포츠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에너지를 집약한다. 캐톨릭 보고에 의하면 2014년 여름에 뉴욕의 캐톨릭 교구 중에서 368개의 교구들이 문을 닫거나 합병을 하고, 26개의 캐톨릭 학교들이 폐교할 예정이다. 반면에 스포츠계는 부흥을 경험한다. 뉴욕과 뉴저지는 수천억불을 들여서 새로운 야구구장과 풋볼구장을 만든다. 이것은 캐톨릭단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스포츠의 이상화는 스포츠가 종교를 없애고 종교가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상화는 교회의 세속화와 함께 온다. 세속화는 신앙생활의 참여가 둔해지고 대신 스포츠에 대한 헌신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자기 팀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 (14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우리는 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인데 이민자이나 이민자들의 후손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버디스 송 집사

A: 신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민자나 이민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이민자이며 야곱과 요셉 등이 다 이민자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다니엘이 다 이민자들입니다. 신약의 바울 역시 다소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이중 문화와 언어 즉 히브리어와 헬라에 능숙한 선교사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 까지 가서 선교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민자입니다. 그 분은 하늘의 영광보좌를 버리고 갈릴리 사람으로 오셔서 갈릴리에서부터 그의 천국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이민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 찾고 뿌리내려야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위에 이민오신 이민자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헤롯이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학살할 때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 이민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따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역이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민자는 어쩌다가 고국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청교도처럼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성서 신학자 와타나베 교수는 성경에는 여섯 개로 구분할 수 있는 이민의 역사가 기록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간 것, 둘째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셋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넷째는 유대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강제이민, 다섯째는 다시 바벨론에서 유대로 귀환한 역이민, 여섯째는 초대교회의 박해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져 간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이민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경 여러 곳에 있으나 렘29:4-14의 말씀이 가장 핵심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유대나라가 북방 신흥대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귀족과 기술자와 젊은이 만명만 이방 땅 바벨론에 갇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강가 언덕에서 멀리 예루살렘 언덕에서 멀리 예루살렘을 향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시137: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며 한숨과 탄식 속에 살며 집을 짓지 않고 결혼도 포기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유대 포로민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정을 붙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렘29:5-6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의 아들로 자녀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민자들은 이제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동하고 정을 붙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좋은 미국 시민이 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잘 교육시키고 사8장처럼 배어진 상수리 나무같은 이 미국에서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을 새롭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렘29:7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모한 대로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 할 것이니라." 셋째는 꿈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은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추진력이요 힘입니다. 절대로 꿈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희망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재건남가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재건남가주장로교회는 36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재건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가능하신 분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 5년 이상 이신 분
-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
- 3년 Term으로 사역 가능하신 분
-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을 가지신 분

제출서류

- 한글, 영문 이력서
-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비전 및 자신의 신앙고백서
-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안수 증명서
- 한국어 및 영어 설교 Tape or CD
- 추천서

제출처

The Revived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1732 S. Verne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수신 : 청빙위원장

기타사항

1. 청빙에 관한 문의사항 email : brianle91@gmail.com
2. 제출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전화문의는 사절합니다.

'3.1절 기념' 평화통일 소망기도회

초청의글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연합하고 교계가 연합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 미주한인 뿐만이 아니라 남북이 하나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머지않아 통일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동포들을 초청하오니 평화통일 기도회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기도주일

모든 교회들은 3월2일(첫 주일)을 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지킵시다.

주일에배에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특별 합심기도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4년 3월 2일(주일) 오후4시

장소: 나침반교회(민경엽목사)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전화: 562-691-0691



주최: OC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평통OCSD협의회
후원: OC목사회, OC한인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동남아시아의 타이 농(Thai Nung)



타이 농(산지 농족으로도 알려짐) 족은 중국 남부의 운남(Yunnan) 성에서 베트남 북부로 이주해왔다. 1954년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의 타이 농 사람들이 피난을 시작했고 베트남 남부에 다시 정착했다. 약 5만명 정도의 농족들이 라오스의 중북부지역으로 이주했고, 11만5천 명이 웃도는 인구가 이들의 원래 고향인 중국에 남았다. 타이 농 족은 중부 타이어(Central Tai languages)들 중 한 언어

를 사용하는 디악(Diac) 종족이다. 중국에서 타이 농족은 소수민족인 Zhuang(중국어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나, 베트남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소수민족 집단이다. 중국어로 "농(Nung)"은 "풍뎡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에서는 타이 농 족을 중국계 농 족과 구별하기 위해 "운남 타이족(Yunnan Tai)"으로 부른다. 이 두 종족의 언어는 서로 다르나 주로 서부 팡시(Kwangsi) 자치주인 중국-베트남 국경 부근에 함께 살고 있다. 중국인들 사이에 타이 농 족은 유능한 군인으로 정평이 나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사람으로도 인식되었다. 삶의 모습

타이 농들은 근면한 농부들로 높은 산지에 거주하면서 쌀과 인디안 옥수수를 재배한다. 정교한 전통자수기술에 뛰어나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 사는 타이 농 여성들에게 면(綿)을 키우고 실을 뽑고 말려서 천을 짜는 법을 교육시키고 있다. 전통 의상은 집단마다 아주 다양해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중국인과 비슷하게 옷을 입으나 여성들은 바지 위에 다시 긴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큰 "시농"(chignon; 쪽진머리, 머리매듭)을 하며 작은 터번을 두른다. 타이 농 족은 다시 여러 씨족들로 나뉘는데 주로 중국에서 자신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나뉘진 것이다. 부계중심이며 가부장적인 사회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 부모들 사이에서 중매쟁이를 통해 이뤄지는데 신부의 의견은 최종결정에 고려된다. 이후 일단 결혼승낙이 나면, 도교 승려가 이 예비신랑신부의 생일로 태어난 해의 띠에 따라 궁합을 확인해 결혼의 적합성 여부를 살핀다. 그리고 마치

막으로 도교 승려가 신랑 신부의 출생 별자리에 맞는 혼인하기 좋은 날을 잡아준다. 결혼 후에 신부는 자신의 집을 떠나 남편 집인 시가로 옮겨간다. 신혼부부가 그들만의 독립적인 집을 갖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 타이 농 남성들이 때로 다른 부족 여성들과 결혼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족내혼을 꼭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 타이 농 사회에서 부유한 남성들은 한 명 이상의 부인을 거느리기도 하며 그런 경우 여러 명의 부인들이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가까이 밀접해있다. 두 가지 형태로 땅에 집을 짓기도 하고(중국의 토착가족과 같이) 땅에서 띄워 막대를 세우고(고상식가족) 그 위에 집을 짓기도 한다(라오족의 가족과 같이). 각 집마다 조상신들을 모시는 제단이 있으며, 이 제단은 주로 현관문의 반대방향(문을 열면 마주 보이는 곳), 가장 중심에 있는 방에 놓여진다.

신앙 타이 농들은 조상숭배와 사마니즘을 포함하는 전통 민족종교의식을 행한다. 또한 이들은 불교, 유교, 도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죽은 조상의 혼이 살아있으며 이 혼들을 먹이고 돌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혼들이 배고프고 불만을 갖게 되면 악령들이 된다고 한다. 타이 농 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들, 악령, 혼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마을마다 "무당"들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주술적인 질병 치료, 귀신들과의 대화, 마을행사 등의 경우에 이 무당들에게 의지한다. 타이 농은 영혼이나 "피(phi-영적존재)"들이 자연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특히 산, 바위, 나무, 물, 들날 등과 같은 곳에 깃들이 있다고 믿는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영혼들을 통제하며 이러한 영혼들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악귀(惡鬼)들

로부터 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 무당이 항상 자리를 지킨다. 누군가 죽었을 때는 무당이 고인(古人)이 "죽음의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을 행한다. 마을 사람들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자주 치르는데, 돼지, 닭, 오리나 무당이 명한 동물들을 도살해서 제사에 제물로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까지 타이 농 족을 위한 영화 "예수"나 기독교방송매체는 없으며 족복음만이 농족 언어로 번역됐다. 복음적인 기독교 문서자료, 라디오 및 TV 방송 같은 자원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타이 농 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있으나, 중국에 있는 타이 농 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현재 없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한 충실한 일꾼들을 보내시도록 기도하자.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교계, 영화 '하나님의 아들' 밀어주기

기독교 영화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사진)'의 흥행을 위해 교계가 발 벗고 나섰다 미국의 '카리스마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새들백교회의 릭 위렌 목사는 공식개봉 하루 전인 오는 27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대형극장 8개 상영관 전체를 대관해 무료 시사회를 연다. 위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극장의 대형 화면에 등장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며 "신앙 없는 이들에게 예수의 일대기를 보여줄 흔치 않은 기회"라고 말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크로스로드교회도 같은 날 한 극장의 상영관 13개를 빌려 무료 상영에 나선다. 일부 대형 교회들은 히스패닉과 한국계 미국인을 위해 스페인어와 한국어 자막 상영관을 대관했다. 이들 교회는 "교회의 무료 상영 이벤트로 미리 영화를 본 관객들이 입소문을 내 영화 흥행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교회들은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레이쿠우드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입장권 8000장을 구매했다. 오클라호마주의 라이프교회와 캘리포니아주의 베이사이드교회도 입장권 수천 장을 사서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리버티 대학과 하버로비 등 기독교 대학 및 기업들도 영화 입장권 선물 주기에 동참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공동 제작자인 마크 버넷과 로마다우니는 "교계의 자발적 영화 홍보에 놀라울 뿐"이라며 "이 영화를 통해 복음이 수천만에게 전달될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케이블TV의 인기 미니시리즈를 영화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은 오는 28일 미국 내 3000여개 상영관에서 개봉된다.

우간다 대통령, 서방 반대에도 반동성애법 서명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24일 미국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동성애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反) 동성애 법안에 서명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정부 당국자와 언론인, 과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서명식에서 "서구의 사회제국주의가 아프리카에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동성애는 사실상 돈벌이를 위한 용병"이라고 지적한 뒤 "그들은 이성애자이면서도 돈 때문에 동성애를 하고 있다"면서 "어떤 연구도 태생적인 동성애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동성애로 적발된 초범에게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인 동성애나 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동성애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처음으로 레즈비언(여자 동성애자)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무세베니 대통령이 동성애 처벌 법안에 서명할 경우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6일 성명에서 "반 동성애 법안은 우간다 동성애 공동체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우간다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면서 서명 중단을 촉구했다.

미 오순절교단 97년만에 화합 선언

인종차별 문제로 100년 가까이 분열돼 있던 미국 오순절교단이 협력기로 합의했다. 지난 23일 미국의 기독교 매체 크리스체너티 등에 따르면 미국 하나님의성회(AG)와 하나님의성회협회

(UPCAG)는 지난 11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AG 본부에서 분열의 역사를 딛고 협력적 관계를 맺겠다고 선언했다. 백인인 조지 우드 AG 회장과 흑인인 토머스 바클레이 UPCAG 회장은 "앞으로 두 교단은 기도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AG는 1917년 알렉산더 하워드에 대해 흑인이라는 이유로 선교사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인사들이 반발해 교단을 탈퇴했고 1919년 독자적인 교단 UPCAG를 설립했다. 이후 AG는 흑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을 포용했지만 두 교단은 합쳐지지 못했다.

2010년부터 협력을 위해 모색과 노력이 움트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소속 교회가 양쪽 교단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양 교단의 사역 프로그램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시리아-터키 국경지대 병원서 폭탄테러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대에 있는 야전 병원 인근에서 23일 폭탄이 터져 최소 15명이 숨지고 65명이 부상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dpa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폭발은 시리아 북부 아드메 마을의 '오리엔트 병원' 주차장에서 폭발물이 적재된 차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 여파로 오리엔트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도 의료진 다수가 다쳤고 부상자 중에는 5살짜리 아이도 포함돼 있다고 목격자는 말했다.

터키 당국은 부상자 10명이 국경을 넘어 자국 영토에 있는 레이한들리 마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시리아 난민 수천 명이 피신해 있고 시리아 반군이 활동 중인 이 마을은 터키와 국경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고 현지 활동가는 전했다. 폭탄 피해를 본 이 병원은 오리엔트TV 방송사를 운영하는 걸프국 출신의 기업인 가산 아부드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 동성애차별법 반대 여론 고조

자영업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손님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 미국 애리조나주 법률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슈퍼볼 개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에 쟁 브루어 주지사가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5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프로풋볼연맹(NFL)이 애리조나주 동성애차별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NFL은 내년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열릴 예정인 프로풋볼 결승전 슈퍼볼의 정상적인 개최를 걱정하는 입장을 내놨다.

NFL 대변인은 "우리 원칙은 관용과 포용, 그리고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 반대"라면서 "법률 시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는 보수 정권의 독선 탓에 슈퍼볼 개최권을 박탈당한 전력도 있다. 애리조나주 펄피는 지난 1993년 슈퍼볼을 유치했지만 애리조나 주정부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인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최권을 박탈당했다.

애리조나주에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던 애플도 주지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 했다. 애리조나캐피탈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애플 관계자가 주지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동성애 차별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애리조나주 메사에 아이폰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할 바 있다.

아메리칸항공도 그 파커 최고경영자도 동성애차별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아메리칸항공과 합병한 US에어웨이 최고경영자를 지냈다. US에어웨이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뒀다.

이런 전방위 반대 여론이 들끓자 애초 법률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이던 브루어 주지사도 마음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다. NBC는 브루어 주지사가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YWAM DTS / Dominican Republic 2014 COMMUNITY DEVELOPMENT DTS



CD DTS



세상은 크리스찬을 볼때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CD DTS는 성경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3개월의 강의와 2개월의 아웃리치를 통하여 함께 공동체로 살며 주님의 삶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DTS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DTS 목적

- Gather & Challenge (모이고, 도전하게 하는것)
- Inspire & Develop (고취하고 개발하게 하는것)
- Shapen (연마 시키는 것)
- Prepare (준비 시키는 것)
- Impart (전하는 것)

훈련 기간

강 의: 2014년 4월3일~6월26일
전도여행: 6월27일~8월21일

신청 및 연락처

www.uofnvillamella.com

Lecture Fee : \$2,500(USD) room/board

(Dominican, Haitian Student) \$1,000

Outreach Fee: \$1,000+Airfare

YWAM CD DTS

1516 Betancourt St. Bella Visa, Santo Domingo, D.R.

TEL: 213-247-9116

E-mail: davidpark1781@gmail.com / evergracekim@gmail.com

연락: 허승호 선교사 / 박 남수 장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21)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카이퍼의 교육 투쟁의 열매

학교 정책에 대한 카이퍼가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교육이란 말은 교회 교육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즉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혹 중에는 선교와 교육의 중요성을 동시에 말했다.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고 했다. 즉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의 방법 중에 '가르쳐 지키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 후 16세기 종교개혁, 특히 칼빈주의적 개혁자들은 교회는 신학의 개혁 못지않게 교육의 개혁을 단행한 크나큰 사건이었다.

1523년에 쾰링거(Ulrich Zwingli)는 "청소년들의 기독교

교육"이란 작은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스트라스버그에서 불란서의 피난민 목회를 할 때 기독교 교육의 선각자 존 스톰(J. Sturm)의 학교를

방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육의 기초라고 선언했다. 그 후 그는 종교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교역자와 평신도를 아울러서 개혁주의 사상으로 교육시키는 제네바 대학을 1559년에 세웠다.

카이퍼의 영향은 전 유럽 대륙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화란의 개혁파 교회, 불란서의 위그노파(Huguenotes) 영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등에서 조

기부터 칼빈의 교육이념으로 실행되었다. 그 후 코메니우스(J. A. Comenius)나 페스타로치(Pestalloggi)같은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왔다.

하지만 18, 19세기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학교, 모든 학문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떠나서 세속화 되었다. 교회의 위기가 곧 교육의 위기가 됐고, 교육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되었다. 카이퍼가 교육 개혁을 위해 투쟁할 시기에는 불란서 혁명의 영향을 받아 '주인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no master no God)는 것이 당시의 구

호였다. 이러한 사회상은 당시 유럽사회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준다. 교육이 무신론적이 되고 과학적 합리주의를 이상시 하는데 국가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당시 교회들도 자유주의 사상으로 세속화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교회를 살리는 방법으로 첫째는 국가지상주의가 일반적으로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언약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관으로 모든 학문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전 생애를 교육 투쟁에 바쳤고 결국은 승리했고 자유대학교를 세워서 국립대학의 교육과 맞섰다. 그래서 그 학교로 말

첫째는, 칼빈주의 교육 사상은 이원론(Dualism)은 거부한다. 즉 "은혜"와 "자연" 혹은 "영적영역"과 "자연적 영역", 또는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둘로 나누어버리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거부한다. 그래서 카이퍼의 교육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기독교 교육학자 워터링크(Waterink)는 "사회적 삶이 없는 개인적 삶은 소망이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칼빈주의 교육이념은 우주적이며 삶의 전체성(Totality of life)을 강조한다.

둘째로, 칼빈주의 교육이념을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소명(召命)을 강조한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을

생의 구체적인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칼빈주의적 교육원리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그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다. 교육의 원인, 결과, 규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롬11:36)되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만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칼빈주의 교육의 출발점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복이다. 칼빈주의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는 결국 하나님중심 사상이다.

넷째로, 칼빈주의적 교육원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대답이다. 인간은 죄로 타락했으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이다. 그런데 인간의 내부는 "종교적 자아",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전제가 된다. 성경적인 인간론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의 대상이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칼빈주의적 교육원리는 위대한 칼빈주의적 교육운동의 아버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이다. 이는 또한 모든 칼빈주의자들의 사상이기도 하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에 생사를 걸었다. (다음호에 계속)

칼빈사상 발전시켜 현대적이며 신칼빈주의적 사회 및 정치 이론 조성 이원론적 세계관 거부, 청지기 소명, 하나님 중심사상 교육원리 강조

미암아 수많은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대학자들이 나와서 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법률, 교육 등 삶의 전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했다.

말하자면 카이퍼는 칼빈의 사상을 발전시켜 현대적이면서 신칼빈주의적인 사회 및 정치 이론을 만들었다. 카이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칼빈주의 교육의 특색과 원리를 개요하면 다음과 같다.

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세계의 놀라운 가능성을 열도록 명령하시고 축복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중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교육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건설의 소명을 강조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

칼림 음악목회 (23)

회중찬송의 회복 (2)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회중찬송의 회복은 영적인 찬송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음악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찬송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기분 나는 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남가주 교회음악협회에서 주관한 교회연합찬양제가 있었습니다. 10여개 교회의 찬양대들이 순서에 따라 갖고 닦은 솜씨로 정성을 다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성의 어느 교회 찬양대 순서가 되었습니다. 찬양대가 무대 위에 올라와 서고 여자 지휘자가 등단하는데 예상외로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가족들로 구성된 분 중의 한 분

이었습니다. 사문 기대도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의 배경과 경력이 보통 화려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주에 이어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도무지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가 민망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휘자가 마치 흑인들이 절제함이 없이 마구 흔들며 때때 노래하듯이 온몸을 흔들며 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휘에도 지휘법이 있는데 음악적인 요소들을 초월하여 몸으로 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찬양대의 찬양도 산만하고 어수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자도 화성도 리듬도 모두 다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는 결코 음악적인 요소를 모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줄리아드 음악대학을 졸업한 재원이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이해하기는 그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 영적인 찬양에 접목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을 누가 맞았겠습니까는 성령에 의해 영으로 찬양한다고 절제 없이 규범 없이 찬양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곧 예배인데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신 말씀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되 진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깨뜨리지 말고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음악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악의 신비한 조화 즉 Over tone and Balance 그리고 Blending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음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22절-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교회마다 CCM 찬양을 드리는데 영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절제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찬양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시편33편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찌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

니다. 여기에서 '공교히'라는 말은 skillfully라는 말로서 고도화된 기술로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음악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사와는 다릅니다.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준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더구나 연습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예배 찬양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연습생들을 함께 세워 찬양하는 것은 함께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결코 연습이 아닙니다.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훈련과정이 있어야 하며 전문가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함은 물론 본인 스스로 열심히 연구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소재가 음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음에 대한 체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부르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연습할 때는 혼자 자신이 잘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음정훈련이 잘되면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 사 다른 사람들과 음을 맞추어 즉 튜닝하여 서로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잘 부를 수 있는 음역이 있는데 그 음역에 따라 화음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음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아주 다릅니다. 단선율로 부를 때, 음정이 더 흔들립니다. 화성이 있을 때는 서로 의지가 되고 보완이 되기 때문에 더욱 좋은 음정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서로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음악을 잘하려면 귀가 좋아야 합니다. 음악은 입이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하는 것이지요. 음에 대한 체감 즉 귀로 듣는 훈련이 좋은 찬양사역자를 길러내는 길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77. 창조론의 기초(27) 성경에 나오는 공룡들

“이제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뱀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 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

중한 동물이 아니었을까? 멸종한 동물의 대명사는 ‘공룡’일 것이다. 공룡이란 단어는 ‘무서운 도마뱀(terrible lizard)’란 뜻으로 1841년에 생물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이며 영국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의 최고 관리자였던 오웬(Richard Owen)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1841년 이전의 문헌에서는 공룡이란 단어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문헌의 동물이 공룡이었는지 아닌지는 그 문헌의 묘사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

배우고 있다. 진화론은 공룡을 사용해 사람들이 시간의 심연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화석으로 발견되는 엄청난 크기의 공룡들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미스터리로 남겨두어 우리에게 영원과 같은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긴 시간을 가르치고 사실로 믿게 만든다. 지금까지 이 작업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 결과는 두 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다. 진화론은 더욱 사실로 믿어지게 하고 성경 역사는 더욱 신화로 만드는 것이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내용 전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당 문을 닫게 하는 것이다. 진화론은 복음의 내용과 필요를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과 고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창3장, 롬5:12). 그러나 진화 역사와 성경 역사 두 역사가 다 사실일 수 없다. 따라서 진화론을 택할 때 당연히 성경 역사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 진화 역사가 사실이라면, 죽음은 사람(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문제가 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마

아주 간단하게 증명해볼 수 있다. 고생대 화석과 중생대 화석과 신생대 화석들을 각각 탄소연대측정을 해보는 것이다. 그 결과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 각 시대의 화석들의 나이는 수 억 년 혹은 수 천만 년 혹은 수백만 년이 아니라 모두 다 매우 비슷하게 최근 것으로 나왔다. 또 지난 2012년에는, 9마리의 공룡의 뼈나 잔해를 연대 측정된 결과들이 세상 학회에도 보고되었는데 역시 모두 다 아주 최근 것들이 밝혀졌다(그 보고는 그 학회에서 삭제되었지만 youtube.com에 아직도 남아 있다. Carbon-14 dated dinosaur bones-under 40,000 years old)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석탄들의 연대 측정 결과도 모두 앞의 공룡들과 비슷한 최근 연대로 나왔다(탄소측정 연대가 4500년이 아니라 수만 년이 된 이유는 홈페이지의 창조과학칼럼 1459에서 볼 수 있다.) 석탄과 석유 그리고 모든 생물체뿐 아니라 심지어 다이아몬드까지도, 탄소가 포함된 모든 물질들의 연대는 노아 홍수와 수천 년의 성경 역사가 사실이며 진화론의 역사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증거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공룡도 성경 역

고, 중, 신생대 화석들 탄소연대측정하면 비슷한 시기에 존재 베헤못은 육시대 인간과 공존했던 공룡으로 진화론 잘못 증거

것이 연 앞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앉드니 연 앞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욥40:15-24).



베헤못의 꼬리 찾기
육기 40장의 베헤못의 꼬리는 하마나 코끼리와는 절대도 어울릴 수 없다. 베헤못은 육의 눈 앞에 살고 있었던 대형 초식 공룡이었음에 틀림 없다.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이 ‘베헤못’을 ‘하마’로 번역하였다. 하마도 초식성이고 무시무시한 동물이지만 꼬리만큼은 자랑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 하마의 특징은 최대 170cm나 되는 큰 입과 150cm나 되는 송곳니 그리고 우람한 몸통이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큰 것도 아니다. 더욱이 하마 꼬리는 약 15cm 정도로 하마의 몸 중에서 가장 초라한 기관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 소개한 육기의 동물은 하마일 수 없다. 코끼리를 묘사한 것도 아니다. 백향목은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나무인데 베헤못의 꼬리가 움직이면 그 백향목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육에게 보라고 명령했던 그 베헤못은 지금은 볼 수 없는 멸

종 정황을 보았을 때 육기에 묘사된 베헤못은 멸종한 공룡으로 보인다. 베헤못을 공룡으로 볼 수 없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진화론의 역사일 것이다.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중생대 즉 지금으로부터 2억년-6500만년 전에만 생존했던 생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류는 10만년전 혹은 길어야 100만년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하므로 사람들과 공룡이 함께 살지 않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육의 눈앞에 살고 있었던 베헤못도 공룡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이런 논리를 짓을 때기도 전부터 TV를 통해

지막 아담에 수님의 역할은 이해할 수 없고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 그러나 진화 역사는 사실이 아니다. 진화 역사는 만들어진 역사다. 지층이나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층들이 진화론의 순서대로 발견된 것도 아니다. 화석(표준화석)들을 진화의 믿음으로 배열하여 만들어진 허구의 시대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이 발견되기도 전에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역사를 화석만 가지고, 그리고 진화론의 믿음으로, 지질시대표 혹은 지지계통표 라는 진화론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전혀 과학적인 것이 아니며 꾸며 만들어진 허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 역사가 절대적인 ‘사실’로 소개되고 있다! 진화 역사가 사실이 아닌 것은

사 안에서 살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공룡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은 다음 칼럼에서 더 다룰 예정이다). 육기 40장에 나오는 베헤못은 6000여 년 전 창조 6일째 종류대로 창조된 땅 위의 동물이며, 육기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은 창조 5일째 창조된 수룡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4500여 년 전 노아홍수 심판 사건에서 살아남았다가 육 앞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베헤못은 한 쌍의 어린 것이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고 리워야단과 모든 수중 생물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물속에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중에서도 창조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아 사람들의 다스림 아래 있도록 축복하셨다(창9:15).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또 한 차례의 인류의 반역 사건 결과로 멸종하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 사건의 영향으로 수많은 생물들이 계속 멸종하고 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수)

강아지를 통한 배움

지난 봄 딸은 샌디에고로, 막내는 뉴욕 시라큐스로 떠나게 되자 평소 배려심 많은 둘째가 엄마가 외로울 것 같다고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다. 알고 보니 이들의 속셈은 자기도 이제 나이가 서른 넘었으니 독립해야 한다고 집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나도 동생도 집을 떠나게 되었으니 자기도 간다는 말하기가 미안해서 미리 강아지로 대책을 세운 셈이다. 엄마 입장에서 마침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수술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소변도 못 가리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으니 동무는커녕 일거리였다. 밖에서 저녁식사 약속이라도 있는 날이면 캄캄한 데 혼자 있을 것이 안쓰러워서 아침부터 불을 다 켜놓고 나가고 후시 타주에 갈 일 생기면 불바줄 사람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조그만 것이 밟힐 정도로 졸졸 뒤를 따라다니니 불쌍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다가도 사람이 바로 치워주지 않으면 똥을 가지고 노는 바람에 정말 기절할 노릇이었다. 그래서 퐁강아지라는 말이 있는 것인지... 혼내주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 정말 답답해서 데려갈 사람 있으면 주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일 년 가까이 강아지를 키우다보니 강아지도 좀 철이 들었고 나도 강아지에게 정이 들어가는 것 같다. 물론 강아지를 자식처럼 여겨서 침대에서 같이 자고, 옷을 해 입히고, 발바닥이 콘크리트에 닿으면 아프다고 신발을 신기는 경지는 아니다. 강아지를 사람처럼 우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 한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더니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강아지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나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듯이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된다.

어느 날은 해질녘에 강아지와 동네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큰 개가 길 건너에서 토비(강아지 이름)에게 달려왔다. 완전 무방비상태에서 얼른 강아지를 안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벌써 토비는 줄을 벗어나 도망가고 큰 개는 토비 뒤를 쫓아가고 있었다. 마침 발가락에 금이 가서 절뚝거리며 다닐 때였는데 발가락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열심히 쫓았는지, 한참을 쫓아가보니 큰 개는 다른 집개랑 짓고 싸우고 있는데 토비는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밖은 어두워져 가는데 어디서 토비를 찾아야 하는 건지 한심하기도 하고 정신없이 뛰느라 잊어버렸던 발가락이 아파오기도 해서 터벅터벅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 토비가 집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반갑던지, 똥 가지고 놀아서 밟다고, 다른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할 때도 있었는데 어내세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 버린 것이다. 우리 집 강아지니가, 주인만 바라보며 의존하니가 내 발 아픈 것도 잊어버린 채 흑사라도 큰 개에게 물리더라도 할까봐 정신없이 된 것이다.

강아지의 운명(?)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때로는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가. 그러나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철없이 미운 짓을 해대도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자녀이니가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것이다. 언제나 자녀 된 우리의 최선을 위해 애쓰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토비를 통해 배우게 된다.

토비는 육심이 많아서인지 던지기놀이(fetch)를 하면 물고 온 것을 놓지 않는다. 입에 물고 온 것을 내려놓아야 다시 던져줄 텐데 계속 물고 있다. 아무리 “토비, let go!”라고 말해도 놓지 않는다. 아마 물고 온 것을 내려놓으면 다시 던져준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다른 장난감을 던지면 두 개를 다 물고 오거나 두 개 다 입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야만 하나를 내려놓는다. 육심생이 토비를 보면서 육심 많은 내 모습을 본다. 지난 연말에 교회사역을 내려놓으려고 결정했었다. 말로는 그 분이 내 모든 앞일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막상 변화의 때가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그것이 쉽지 않음을 느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옮겨주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터인데 흑시 싶어서, 내려놓았는데 새것을 안주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망설이는 내 모습이였다.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는데도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뢰하기 힘들어하는 토비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다.

아직은 강아지가 주는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커서 토비를 이별하는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토비를 데리고 갔으면 참 고맙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토비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니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도 주고, 산책도 데리고 나가고, 똥을 주어가면서 토비를 돌보는 것 같다. 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것이 아주 잘못된 결정은 아닌 듯하다.

말씀 부흥 대성회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아침)부터
3월 6일(목, 저녁)까지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213) 382-1450

|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조성근 목사 초청 부흥성회

| 일시 : 2014년 2월 21일(금) 저녁 7:30
22일(토) 새벽 5:30
저녁 7:30
23일(주일) 1부 8:00
2부 10:00

| 장소: 한인장로교회(담임 한재신목사)
1601. Art St. Bakersfield, CA 93312

| 문의: (661) 589-5791



리차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운동의 정체성 이해 (8)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나아가서 포스터는 '영적 형성'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묵상 방법을 소개한다. 그것은 놀랍게도 '상상(imagination)에 근거한 묵상이다. 상상이란 상당히 주관적일 뿐 아니라 성경도 이에 대하여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도 포스터는 상상에 근거한 묵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방법으로 가르치시며 늘 상상력에 호소하셨다. 많은 경건의 거장들도 마찬가지로 이 길을 권장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경건의 거장이란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와 프랑수아 드 살르(Francis de Sales) 등 널리 알려진 신비주의자들이다. 이와 같이 포스터는 신비주의자들의 방법을 여과 없이 소개하면서 상상에 근거한 묵상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였다.

으로서, 머튼은 수도원적 수도사들이 하나님과의 합일을 지적할 때 사용하였던 '관상'(Contemplation)이란 단어로 그 뜻을 설명한다. 토마스 머튼은 평생토록 신비주의 전통이 가장 본질적으로 여기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심혈을 기울인 20세기 트라피스트(Trappist) 수도사였다.

관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영으로 되는 신비한 상태를 가리킨다. 머튼은 "관상의 새로운 씨앗들"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초월적이며 무한하게 풍성한 근원(Source)으로부터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생생한 깨달음이다. 관상이란 무엇보다도 그 근원에 대한 실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에게 관상이란 마치 직접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경험이지만, 동시에 그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머튼은 종교개혁 이후 로마가톨릭교회의 기도가 변질되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교리의 중요성을 강화하면서 과거 수도원에서 행하여지던 관상기도의 원리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관상기도"(Contemplative Prayer)를 저술하면서 수도원적 관상기도의 부활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관상에 이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던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두움의 밤이 그치도록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머튼은 반복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관상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관상 기도란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에 그 이름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머튼의 관상 기도도 포스터의 '하나님과의 대화'와 그의 미가 유사하다.

“반복의 결과로 얻어지는 머튼의 수도원적 관상기도와 포스터의 ‘하나님과의 대화’, 신비 경험이 궁극적 목적”

"영적훈련과 성장"에서도 묵상을 어렵거나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포스터는, 특별한 방법을 배우려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유하면서 머튼의 글을 인용하며 소개한다.

머튼은 1948년 출간한 자서전 "칠층산"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인물로서 평생토록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관상기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단어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칼빈도 "기독교강요"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거룩한 삶의 중요성을 교훈하면서 이 개념을 소개하였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거룩함이 그 연합의 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고 했다. 우리의 거룩함이 공로가 되어 그것을 근거로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그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고,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하나님의 영광이 약이나 부정과는 어떠한 교제도 나누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머튼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언급하고 있다. 이 연합은 실제의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만남

것은 매우 신비하여 언제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 조직적인 체계, 설명, 강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 해서 "관상은 하나님께 대한 초자연적 사람이요 인식으로서, 그에 의하여 영혼의 가장 높은 곳에 부어져 내린 단순하고 어두운 것으로서, 그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체험적인 그분과의 만남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머튼이 말하는 관상이란 포스터가 설명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관상에 이르는 길은 그리 쉽지 않다. 머튼은 십자가의 요한(John of the Cross)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감각의 어두운 밤을 지나 관상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 밤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밤은 마치 만물이 시야에서 시작되는 때, 두 번째 밤은 자정과 같이 완전한 어둠에 사로잡힐 때, 그리고 세 번째 밤은 빛으로 가까이 다가선 밤의 끝부분이다. 이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리기도 하며 노력한다고 항상 이루어지는 보장도 없다. 어둠의 밤을 지나려면 인내하며 무한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관상 기도'(Contemplative Prayer)는 무엇인가? 그것은 관상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매우 구체적이며 효과 있는 방법이다. 이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나 지적인

무엇을 말하는가? 포스터는 가톨릭 신비주의자인 머튼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한 것이다. 머튼과 포스터는 동시에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신비한 경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이 각기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합일'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정체성만 있다.

만일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관상 기도'가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도구라면,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묵상이나 기도가 아니다. 어느 종교나 기도를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의 대상과 목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 대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도를 신앙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나아가서 성도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하여 포스터가 제안하는 빛을 기다리며 어둠 속을 방황하는 행위로서의 관상기도는 결코 기도가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



방지일 칼럼 (29) “본대로 들은 대로”

갈 등

갈등은 상대가 있기에 온다 하겠다. 합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갈등이다. 내외간이 다 신앙인이나 주일을 지키고 있어 아내의 주일을 꼭 지키려는데 남편은 그날 골프나 낚시나 하게 되었다는 내외간 갈등이 있다. 연휴일인데 주일이 끼었다. 가족이 같이 휴일을 즐기려는데 그렇지 않아 꼭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가족의 갈등이 있다.

어른은 입학시즌이라 이때쯤은 주일을 걸러서도 시험 준비하라고 하는데 아들은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데 갈등을 보았다. 이와 유사한 일을 목회하면서 때도 본다. 자신상의 갈등도 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언급되어 있다. 그 자신의 갈등은 대단하였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누구도 있는 것이다. 꼭 할 일이 있는데 즐긴다. 조금 자자 하다가 길게 밤새 자고 만다.

시험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때로 당하는 일이다. 먹는 기호, 관광의 기호, 운동구경의 기호, 기호라 유적으로 거기 편향한다. 그보다 더 긴요한 일이 있어 갈등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목사에게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당한다. 흔히 내외간, 고부간, 친자간의 갈등 문제를 때로 접한다. 그 지적하여 이렇다 저렇다 판단이 그리 쉽지 않다. 성수주일 문제 목사가 가정의 화합을 위해 주일지키는 문제를 소홀하게 말할 수도 없다. 그것은 안된다고 단정해주면 가정은 내외간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다.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한 때가 많다. 다 좋게 할 수 있는 길? 어느 한편의 희생?

목회자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바로 지적할 수 없는 일이 당차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할 뿐이다.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해보고 양심이나 말씀의 지시를 기다려 보자 하기가 가장 쉬워 보인다. 갈등하는 상대가 이만한 신앙의 소유자일 때는 잘 먹혀 들어갈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일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승패로 해결함은 해결이 아니다. 암시 뻔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더 큰 화근이 되기로 함을 보았다. 한편이 설복을 당하여 그 당시에는 넘어가는 것 같으나 다음에 유사한 문제에 와서 더 큰 갈등으로 전과 정반대로 한편이 승하여야 되게 마련이다. 그 다음에는 그 패한 편이 승하여야 해결되는데 이는 해결이 아니라 얼치락뒤치락 이번은 내가 이겼지, 다음에 보자. 기여히 놀려야 직성이 풀린다. 다음에 그 반대로 그런 방안을 안출하여 내게 뉘를 본다. 승패로 가릴 수는 없다.

갈등이 안 생기게 기도하게 하는 길이 가장 긴요하다고 보겠다.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피차에 갈등이 안나도록 미리 기도하게 단속하는 것이 상책이다. 공휴일 더욱 연휴 때에는 놀러가게 되어 주일을 범한다. 아예 가정교훈으로 우리 집은 성수주일은 원칙이라 내외간 또 자라나는 자식에게까지 이 문제는 원칙일 때는 그 갈등이 아예 일지도 못하게 된다.

나는 이런 내외간 갈등에서 큰 성과를 보았다 하겠다. 내외간에 부인은 신앙이 독실하시다. 남편은 후덕한 분으로 신앙은 없다. 부인의 신앙생활에 아무 저해도 하지 않는다. 부인은 남편의 신앙을 위하여 크게 관심이 있다. 남편은 낚시회원이거나 거의 주일이면 낚시를 가되 부부동반이다. 이런 면에 부인은 아예 안갈출 아는 남편은 자기만 독신으로 간다. 한편은 그 낚시회에서 내외간 꼭 동행하는 낚시를 가게 저들이 작정하되 6개월 후에 할 일을 작정했다는 것이다. 남편이 부인에게 "보통 때는 나는 아무 간섭 없었으니 이번만은 가줘야 할 것"이라고 6개월 전에 통고함이다. 부인도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그 부인 자신이 이 문제의 갈등으로 내게 왔고 나도 즉시 단안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좀 침묵하다가 "허락하세요" 그러면 "나도 한 제의를 할 터이니 수긍해줘야 합니다" 했더니 무엇이나 그 물음 때 "내가 당신의 말에 수긍했으나 내 말에도 수긍하겠소" "무슨 말인가?" "내일부터 나와 같이 새벽기도회에 가줘야 하겠어요" 했더니 그런 자기 말에 수긍함이 너무 고마워 "그러지 새벽에 같이 가자!" 하고 꼭 내외간이 잘도 나왔다. 한 3개월 나오더니 남편 말이 "나 낚시회에 탈퇴하고 나도 주일 지키겠소" 하였다.

(1999년, 2권)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년 5월 본교 강의안내

May 12-16(5월 12 -16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om Stallter

May 19-23(5월 19-23일)

DI 8280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PM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식 리허설(Graduation Rehearsal)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졸업식 장소
(졸업예정자는 전원 참석해야 하며 정장차림을 해야 함)

총장주관 졸업만찬(President's Luncheon)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12:00-1:30pm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ster Hall)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원로목사회 제 12회 정기총회

뉴욕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 제 12회 정기총회가 3월 19일(수) 오전 10시(예배 시작) 뉴욕만나교회당(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445-3182

퀸즈장로교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제 27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3월 10일(월)부터 4월 20일(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시작된다.

▲문의: (718)886-4040



퀸즈장로교회 설립40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진리로 기록하게 하소서”

퀸즈장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예배 성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오후 5시 기념예배를 드렸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지난 40년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시간이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새로운 40년의 역사를 기도로 열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장영춘 원로목사(왼쪽)와 김성국 담임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포즈를 취했다.

퀸즈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친 적이 없었다. 셋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비전 가운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

하실 것이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교회 가 되자”고 말했다.

이날 간증한 최시몽 집사는 20년 영어예배부를 섬기며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QPEM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사역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장영춘 원로목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성국 목사는 1973년 교회를 개척하고 이후 38년 간 교회를 이끈 장영춘 원로목사의 노고에 감사하며 감사패를 증정했고, 장영춘 목사는 성도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답사했다.

퀸즈장로교회 설립40주년 기념예배는 본 교회 교인들만의 힘으로 이뤄져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특별히 어린이 찬양대와 워십댄스팀 등이 함께 참여한 연합찬양대의 찬양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유원정 기자>

KCBN, 송신소장비 대체로 깨끗한 음질 송출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 문석진 목사)이 송신소의 송출장비를 대체하고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송출하게 됐다.

KCBN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방송 송출에 문제가 생겨

정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엔지니어에 의해 빌딩에 위치한 WAXQ 방송국 송신소의 서버케이블이 장비교체로 2월 19일 이후 이전보다 강한 출력으로 송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장로연합회가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19차 목요조찬 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 제19차 목요조찬 기도회가 지난 20일 오전 8시 장로연합회 예배실에서 열렸다. 회원 35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는 이계훈 장로 인도로 기도 김기환 장로, 설교 이만호 목사(“의인의 삼대 기업”, 시37:18-26), 특별기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기도는 △10월 다민족선교대회를 위해 △뉴욕교계와 장로연

회 발전을 위해, 제목으로 이보춘 장로와 김주열 장로가 각각 인도했다.

예배 후 간단한 조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어서 열린 임원회에서는 “다민족 선교대회” 행사준비위원장으로 이계훈 장로를 선임했다. <정라: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오는 8월 초 컬럼비아 아동선교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 홍보대사 김정화 부부가 거주하는 애틀란타도 아동결연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가진 2월 월례모임은 회의에 앞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이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캐더린 목사, 설교 박성원 목사, 축도 김명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성원 목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분류는 부활의 장으로 알려져 있다”며, “주님의 일을 하다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이 말씀을 대하며 용기와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목회사역을 하면서 교회 외에 여러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도움 받는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 안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개인적 영광과 부를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사역도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교회를 위한 기도”(요17:15-2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퀸즈장로교회의 기도제목 세 가지를 강조했다. 김 목사는 “첫째는 변질되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진리로 기록하게 하소서” 둘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40년간

“주 안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월 월례모임

야야 한다. 금메달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올림픽 선수들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이 사역을 다 하자”고 말했다.

2부 회의는 박진하 목사의 개회 기도 후 시작돼 업무보고, 안건토의가 진행됐다. 사무총장 이상열 목사는 뉴욕일보 광고 건을 보고했으며 그대로 유지토록 결의했다.

이어 이찬양 간사 페루방문보고가 있었다. 이 간사는 8월 조순 컬럼비아 선교센터 방문에 맞춰 어린 이집티도 현지 사역자와 논의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김정화 유은성 부부가 거주하는 애틀란타의 한인 교회를 통해 후원안내서와 ‘오병이여’ 책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아동결연은 지난 12월 “후원자 감사의 밤” 이후 20여명이 증원됐다고 밝혔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아동결연을 통해 빵과 복음을 전하고 현지 아동선교센터를 돕고 있다. 아동결연은 한 달에 30달러로 1명을 후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eafh.org를 참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북미원주민선교회 발족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연합 토론토 원주민선교회 후원

북미원주민선교회 발족, 대표 김수태 목사

뉴욕에서 북미원주민선교회(대표 김수태 목사)가 발족됐다. 김기호 목사는 광고에서 북미원주민선교회 발족이유를 첫째, 캐나다 김동승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 연합으로 운영되며 미동부 뿐 아니라 미주 전체를 아우르는 선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토 근교에 위치한 원주민선교회를 재정 후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플러스 금강산 식당에서 이사 11명 및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예배는 김기호 목사(뉴욕 중앙장로교회 담임)의 사회로 기도 김홍석 목사(뉴욕기독교교회 담임), 찬양 최명자 사모, 말씀 김석형 목사(몽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 헌금기도 한석진 목사(한길선교회 담임), 축도 방지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석형 목사는 “선교비전의 사랑”(행16:6-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선교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며,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평생을 받쳤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

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사역했다. 하나님께서 계획도 세우게 하시지만 순간에 변할 수 있으므로 성령에 민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끝맺음을 잘해야 한다. 시작은 잘 하지만 중간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며 날마다 더 큰 열매로 맺어가기 바란다”고 말하고 “선교는 도전적이 돼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지혜로 배신감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 선교회는 오는 3월 23일(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북미원주민선교대회를 갖는다. 이날 기독교 개그맨 정충철 집사가 간증한다.

또 6월 중순 선교 공고고를 하고 7월 4주 이상 훈련에 들어가게 된다. 각 순별 모임과 각종 문화팀 훈련이 있게 된다. 8월 3일부터 9일까지는 북미원주민 선교가 실시된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 8쿠마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혜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 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교단 선교발전의 새 계기 마련 백석 'LA세계선교대회 및 미주영성대회'



'2014 백석 LA세계선교대회 및 미주영성대회'에서 백석 동문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이 후원하고 총회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조용환 목사)가 주최한 '2014 백석 LA세계선교대회 및 미주영성대회'가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LA공항 인근 크라운 호텔에서 200여명의 백

석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첫날 오전 9시30분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지부 및 나라별로 선교사들이 입장에 이어 대화장 조용환 목사가 대회선언을 하므로 '2014 백석 LA세계선교대회 및 미주영성

대회'가 시작됐다. 개회예배는 총괄위원장 김진범 목사(하늘문교회)의 인도로 부총회장 이종승 목사(임마누엘교회)가 '백석교단의 위치와 사명'(산11-1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총회장 장종현 목사의 영상축사, 백

석대학교총동문회 회장 정용범 목사와 남가주교협 회장 박효우 목사가 각각 축사를 전하고 명예총회장 장성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종승 목사는 "이번 행사는 백석 교단의 선교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선교대회를 열어 교회의 대표들과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전략을 논의하고, 선교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만들며 각 교회의 선교 자원을 동원화 하는 계기와 선교의 열정을 고취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

김진범 목사는 "교단 선교의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삼고, 교단을 중심한 교단선교에 동참하지 못한 교단 산하 교회들과 하여금 교단선교 정책을 배우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동력화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국제21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국제제자훈련원과 남가주사랑의교회가 공동주최하는 국제21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오는 4월 28일(월)부터 5월3일(토)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린다. 현 이민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세미나의 주강사는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 담임)와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이며 등록은 2월 28일까지. 등록서류는 신청서, 주보, 사진 1매, 등록비는 390달러(숙식 및 교재 포함).

▲문의: (714)635-3000

2014 세계기도일 예배

남가주지역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회장 최미란 권사)가 주최하는 2014세계기도일 예배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라!'라는 주제로 3월 1일(토) 오전 10시30분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331-6048 milancho57@gmail.com

노스힐스한인교회 개척감사예배

노스힐스한인교회(담임 원성재 목사) 개척감사예배가 3월 2일(주) 오후 4시에 열린다. 교회주소는 3100 E.Birch St, Brea, CA 92831

▲문의: (909)938-2711

3.1절 기념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정종윤 목사)가 주최하는 3.1절 기념예배가 3월 1일(토) 오전 10시30분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213)479-9491, (323)708-9191

KUMC 여선교회찬양제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여선교회 찬양제가 3월 2일(주) 오후 4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323)931-9133

교육부 사역자 청빙

새로남교회(담임 서건오 목사, 3407 W. 6th St, Suit 103)는 교육부를 담당할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이종언어가 가능한 자이다.

▲문의: (213)384-0305, jusrarang35@yahoo.com

오이코스대학교 목회학박사과정 학생모집

오이코스대학교(총장 김종민 박사) 박사원(원장 성수남 박사)이 목회학박사과정 학생모집을 실시한다. 자격은 M.Div. 혹은 동등학위소지자로 각 학위성적 2.0이상 취득, 3년 이상 전임목회경력, 영어특혜능력 가능하다. 원서마감은 4월 30일(목)과 8월 30일(금)이다. 오이코스대학교의 목회학 박사과정은 주정부(BPPE)와 TRACS의 인준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문의: (510)639-7879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자원봉사자 모집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서비스 4지역 행정부 홍보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이종언어, 컴퓨터스킬(워드, 엑셀 등), 전화 안내 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이다. 근무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들은 추후 LA카운티 직원채용 시 혜택이 있다.

▲문의: (213)738-3446(안정영 코디네이터)

3.1절 기념 평화통일 소망기도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영 목사)와 민주평통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협의회(회장 권석대)가 공동주최하는 3.1절 기념 평화통일소망기도회가 3월 2일(주) 오후 4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영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562)691-0691

“죽음준비 및 죽음연습” 주제

61차 오렌지카운티 소망 정기교육 세미나

소망 소사이터 정기교육 세미나가 '죽음준비 및 죽음연습'을 주제로 라팔라 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19일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40여명이 참석해 죽음을 체험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죽음을 미리 연습하는 세미나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소망 소사이터의 사역에 맞는 세미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최경철 사무총장과 유태운 홍보대사는 병원 상황극을 통해 사전의 료지시를 미리 준비함으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을 당황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당황하지 않고 모두가 될 고통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긴급연락처 카드에 대해 설명하며 응급상황 시 경찰과 의료진은 물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빠른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가족, 혹은 가장 가까운 지인의 연락처를 카드에 남겨 소지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됨을 설명했다.

'죽음연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주혜미 사역부장은 참석자들이 세미나 시작 전 미리 준비한 죽음연습 카드의 내용을 되새기며 한장 한장 찢으면서 다가오는 죽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음을 되새기게 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죽음연습은 사랑하는 가족, 즐기는 취미, 아끼는 음식 등 일평생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이 사라짐을 체험하게 하여 남은 삶을 아름답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박혜수 교육부장은 이에 이어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소망유언서를 설명하며 단지 나 혼자 마음먹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유언서를 통해 가족들에게 임종 전 내가 원하는 의료의향을 알리는 것은 물론 임종 후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함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유태운 홍보대사는 시신기증을 선택하게 된 이야기를 설명했다. 미국 이민 후 다른 이민자들처럼 장지를 미리 구입하고 그 자리에 매장될 것을 생각했지만 이민 전 선친들의 묘를 정리하고 후손들이 이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니 매장보다는 다른 방법을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현재 UC버버인에서 운영 중인 시신기증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5년 사이 500명이 가까운 한인들이 기증을 신청했고 20여구에 가까운 시신이 기증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장자들이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터)



한인가정상담소 무료학부모 세미나에서 수잔 정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관심갖고 자녀 성장과정 보살피자”

한인가정상담소 무료학부모 세미나 성황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주최한 무료학부모 세미나 첫강의가 22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자녀들의 사회 및 감정적 학교생활: 발달단계를 통해서 자녀를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카이저 병원 소아정신과전문의 수잔 정 박사는 "자녀들이 취학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ADHD) 등의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를 겪는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분노를 제어하기 어려워 추후 사회적인 등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하며 "부모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동들의 성장과정을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잔 정 박사는 아동들도 우울증을 겪을 수 있으며 아동 정서발달에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는 오는 3월 1일 3가 초등학교 수지 오 교장이 '공통 학습기준에 의거한 교과과정, 학습, 평가에 대한 변화, 3월8일 한인가정상담소 로렌 권 부모교육 카운슬러가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자녀로 양육하기'라는 주제로 각각 부모교육 세미나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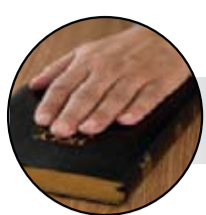
▲문의: (213)235-4842(찰스류), cryu@kfamala.org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터가 주최한 61차 오렌지 카운티 소망 정기교육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강의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월-토)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20 주일3부예배: 오전 9:40 주일4부예배: 오전 11:10 주일5부예배: 오후 12:30 수-금요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10 주일3부예배: 오전 11:10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주일5부예배: 오전 11:45 주일6부예배: 오후 1:45 주일7부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예배: 오후 7:30	동원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중앙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00 (성년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1부: 오전 7:15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주일예배4부: 오전 11:00(헌신) 성일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수요일)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브리스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전 11: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1부예배: 오전 9:30 영어2부예배: 오전 11:00 영어3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 담임목사: 조효숙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1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얼바인침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헌신) 주일4부예배: 오전 11: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목회자세미나: 3월5, 24, 29일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목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토론토주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헌신) 주일6부예배: 오전 10:00 주일7부예배: 오후 8: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목회서신

본질과 원칙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회견에서 세간에서 자기를 '불통의 여왕'이라고 비웃고 있음에 대하여 "진정한 소통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때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여온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소통과 불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와 국민간 당정간 정파, 정당간 가장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할 정치 분야의 소통은 그야말로 불통이다. 그동안 명분과 대가를 주고받으며, 적당히 야합, 타협했을 뿐 소통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본질과 원칙이

없는 무질서 그 자체였다. 그 결과 국민화합은커녕 국론분열만 조장하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기독교계도 정치가 잘못 되었다고 나무랄 때가 아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와 교계가 싸움판이 되고 있음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길 가던 사람이 길에서 싸우는 자들을 보고, "이곳에서 싸우지 말고 교회에 가서 싸우라!"고 할 정도로 교회와 교계가 많이 싸운다는 것이다. 본질과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의 불만을 사게 마련이다. 원칙을 벗어나서 불법으로 타협하며 권모술수적 유희성을 발휘하는 사회는 개판으로 가는 사이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게 되면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며 우리가 가진 잠재능력도 발휘하도록 해준다. 그것은 마치 바퀴의 축과 같아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통합시켜 준다.

3. 교회의 본질과 원칙
기독교의 본질은 사회개혁, 구제, 도덕 윤리,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원칙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구속)와 부활(새생명)에 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설립자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몸, 곧 주인이시고 믿는 성도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이며, 교회의 원칙은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에 있다. 목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목회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고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며 성도의 원칙은 그리스도의 증인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 본질이 집에서의 내부장치 인테리어와 같은 것이라면 원칙은 그 집을 받쳐주는 기둥 같은 것이다.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내부장식이 없으면 빈집 같고, 아무리 내부장식이 화려해도 받쳐주는 기둥이 약하거나 없으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본질과 원칙 모두 필요하다.

가정과 교회와 교파간의 말썽, 분쟁, 갈등, 싸움,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본질과 원칙을 알지 못하고, 무시한 채 무질서하게 자기주의와 자기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소원과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본질과 원칙 안에서 질서있게 가정과 교회와 교단 교파가 하나되고 화목하게 되길 바랄 것이다.



아주사대부흥 기념 기역의 거리 행사가 아주사대부흥이 열렸던 아주사거리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National William Seymour Award 시상자와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아주사 대부흥 기념 '기역의 거리' 행사

다인종 커뮤니티의 기독교 지도자들 참석

아주사대부흥의 현장 아주사 거리에서 윌리엄 세이모어(William Seymour) 목사님과 바디 메이슨(Biddy Mason) 여사를 기념하는 "The Walk of Remembrance"가 아주사거리 미션과 역사학회(대표: 프레드 베리 목사) 주최로 22일 정

오 LA 리틀도쿄 내 일본문화원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리틀 도쿄 안에 있는 아주사 거리는 미국의 오순절 부흥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1906년 2월 22일은 부흥운동으로 전 미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세이모어 목사가

처음으로 LA 다운타운에 도착한 날이다.

이날 행사는 프레드 베리 목사가 이끈 14장6절을 본문으로 윌리엄 세이모어 목사의 부흥운동의 역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외에 일본계의 Barry De Chigui 목사(JACC), 브라질계 Carlos Quantara 목사(Harvest Rock Hispanic Church, Pasadena), UCLA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Erika Foushee 선교사, Lucas Rodrigues 목사(Snowball Church, Bragil), 그리고 리틀도쿄에 위치한 일본 문화와 커뮤니티 센터의 Loslie Ito 관장 등이 참석해서 축사, 다양한 인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세이모어 목사와 LA 다운타운 일대의 땅과 교회 부지를 기증한 바디 메이슨 여사를 기념했다. 그러나 한인교회 관계자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 LA사무소 오픈감사예배에서 정승호 사무국장 이 인사말하고 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진행되기를"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 LA사무소 오픈예배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KAFHI 회장 김형균 목사) LA 사무소 오픈예배가 20일 오후 5시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레스 시에 위치한 영신건강 건물 내 마련된 KAFHI LA 사무실에서 열렸다.

KAFHI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는 "12년 전에 LA에서 한미기아대책으로 시작해 국제본부로 이관된 후 주로 동부에서 기아대책 사역이 이뤄졌다. 이번엔 LA로 다시 옮겨와 사역을 이어나가게 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계획하심이라 믿는다. KAFHI사역이 하나님 뜻 안에서 진행돼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현주 라디오코리아 아나운서가 축사를, 백창호 목사(오렌지 힐교회)가 기도문을, KAFHI 이사 정세훈 목사(새한교회)가 성경봉독을 했다. 소리엘 지명현 목사의 특송 후 노진준 목사(한길교회)가 '죽은 믿음'(약2:14-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정승일 목사(남가주교협총무)의 격려사와 민경영 목사(OC교회)와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의 축사, 허재은 이사(영신건강)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한기형 목사(사상동산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KCCC가 주관한 2014년 나사렛 공동체 업그레이드 부부학교가 성황리에 열렸다.

부부행복퍼즐부터 혼인서약 갱신식까지

KCCC 2014년 나사렛공동체 업그레이드 부부학교

KCCC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가정 사역을 펼쳐온 주수일 장로부와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20일부터 22일까지 풀러튼에 위치한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가정사역 리더를 위한 '업그레이드

커플 세미나'를 개최했다. 3일간의 일정 속에 진행된 '업그레이드 부부학교'는 첫날 지원자 소선 가운데 20일부터 22일까지 풀러튼에 위치한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가정사역 리더를 위한 '업그레이드

로 진행됐다.

첫날 저녁 참가자들을 다섯 개조로 나눠 조별 소개시간을 가졌으며, 신중근 목사와 김미숙 사모가 '행복 퍼즐 강의'를 인도했다. 둘째 날은 주수일 장로가 '창조의 원리'와 '가정제도의 목적'에 대해 강의했으며, 김윤희 박사가 '가정제도의 원리'를 강의했다. 또 주수일 장로와 오은진 권사의 인도로 참가자들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편지쓰기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시간에는 세족식을 갖기도 했다.

셋째 날은 박호근 목사와 옥에스더 사모가 '남녀차이와 부부대화' 시간을 인도했으며 박호근 목사가 '부부할프타임'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번 행사는 주수일 장로와 오은진 권사의 인도 하에 '혼인서약 갱신식'을 가진 후 폐회했다.

(박준호 기자)



Son of God 시사회에서 켄안 선교사가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Son of God" 시사회 성황

예수님 사역 중심 영화...세계선교에 큰 기대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영화시사회가 환태평양 기독교영화제(대표 켄안 선교사 Pan Pacific Film Festival, PFFF) 주최로 21일 오전 10시30분 가디나에 위치한 가디나 시네마(14948 Crenshaw Blvd)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켄안 선교사는 "과거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 그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사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많은 부

분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안 선교사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추천을 했다. 미국 목회자 중에는 릭 워렌 목사와 조엘 오스틴 목사, 그리고 한인목회자 중에는 박형은, 노창수 목사 등이 추천했다. 또한 박희민 목사와 박기호 목사 그리고 이승중 목사 등은 서면으로 추천서를 써주셨다"고 말했다.

안 선교사는 "패션오브크라이스트 이후 약 10년간 주류영화계에

서 기독교영화가 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시사회를 한 '하나님의 아들'을 비롯해 6월에 개봉예정인 '레프트 비하인드', 그리고 제작 중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이 주지사에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과정을 담은 영화 등이 있다. 이는 동성애 이슈 등으로 침체돼 있는 기독교계에 불어오는 영적흐름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안 선교사는 "과거 예수님에 대해 다룬 영화가 13편 정도 되는데 모두가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의 아들' 역시 세계 선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 많은 분들이 보고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미주내 배급 사로는 20세기 폭스사이며, 2월 28일 3편여 개의 영화관에서 개봉이 된다. 한국은 4월중에 개봉예정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보는 http://www.screenitfirst.com/sonofgod/events/rsvp/83%20#sthash.EWW4EMTg.dpuf를 참조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LA코리언필 44주년 111회 정기연주회

조민구 명예지휘자 은퇴 축하공연 겸해



LA필하모니오케스트라 창립 44주년 111회 정기연주회에서 전출연자들이 무대에 올라 합창하고 있다

LA코리언필하모니오케스트라(LAKPO·상임지휘자 윤임상 교수)가 창립 44주년 기념 제111회 정기연주회를 LAKPO 조민구 명예지휘자의 은퇴를 축하하는 특별음악회로 23일 오후 7시 웨슬러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날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는 LAKPO 윤임상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Overture-Die Fledermaus가 연주됐으며 LAKPO를

창단하고 100여회를 연주하며 활동해온 조민구 명예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한국가곡의 향연'이란 주제로 연주회가 진행됐다. 소프라노 김정희, 메조 소프라노 정희숙, 바리톤 장상근, 테너 김원재 등이 출연했으며 한국특별초청 성악가 소프라노 이현정 교수가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다. 또한 원로성악가 테너 남상필이 송의코러스와 동부여성합창단 연

합 합창단(지휘 이선경)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다.

2부 순서는 장기웅 한국초청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돼 소프라노 조현주 & 테너 최왕성, 소프라노 노혜숙 & 메조소프라노 주광옥, 3테너 오위영, 박재웅, 김선옥, 이화보, 김양상, 김무대, 김연주였다. 이날 연주회는 서제나 어린이가 동요 '꽃밭에서'를 출연한 모든 음악인들과 함께 부르며 막을 내렸다.

한편 조민구 명예지휘자에게 열바이 시(시장 최석호)와 LA총영사로 부터 공로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조 명예지휘자는 1969년 LA코리안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창단해 44년 간 한인사회의 문화 개척자로서 열정과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음악인이다. 한국에서 KBS 교향악단 플루트 단원이자 플루트 연주자로 활약했고 칼아트(California Institute of Arts)에서 음악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지휘자로는 최고의 상인 마텔 코르동 블루에서 프리 드 마텔 지휘자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수상, 한인 음악인의 위상을 높였다.

(박준호 기자)

NC교협 웨일빌 지역교협 방문

연합수련회 및 순회 선교부흥회 논의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오늘 8월초 컬럼비아 아동선교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 홍보대사 김정화 부부가 거주하는 애들란타도 아동결연을 확장키로 했다.

NC교협이 웨일빌교협을 방문. 양 교협 임원들이

지난 20일 퀸즈 기념촬영 했다. 레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가진 2월 월례모임은 회의에 앞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캐더린 목사, 설교 박성원 목사, 축도 김영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성원 목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문은 부활의 장으로 알려져 있다"며, "주님의 일을 하다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이 말씀을 대하며

용기와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목회사역을 하면서 교회 외에 여러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 안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개인적 영광과 부를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사역도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금

메달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올림픽 선수들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 없이 이 사역을 다하자"고 말했다.

2부 회의는 박진하 목사의 개회 기도 후 시작돼 업무보고, 안건토의가 진행됐다. 사무총장 유상열 목사는 뉴욕일보 광고 건을 보고했으며 그대로 유지토록 결의했다. 이어 이찬양 간사 페루방문보고가 있었다. 이 간사는 8월 초순 컬럼비아 선교센터 방문에 맞춰 어린이 집회도 현지 사역자와 논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김정화 유은성 부부가 거주하는 애들란타의 한인교회를 통해 후원안내서와 '오병이어' 책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아동결연은 지난 12월 "후원자 감사의 밤" 이후 20여명이 증원됐다고 밝혔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아동결연을 통해 행복과 복음을 전하고 현지 아동선교센터에 돕고 있다. 아동결연은 한 달에 30달러로 1명을 후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eafh.org를 참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폭탄 테러 피해 성도들 안양샘병원 입원 "이집트 악몽 치유, 한국교회 성원이 최고죠"

지난 16일 이집트 성지순례 중 이슬람 과격분자로부터 폭탄테러를 당한 진천중앙교회 성도 22명이 안양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으로 고통받고 있어 장시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25일 병원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증상은 심한 불면증이었다. 이모(60·여)씨는 몸속에 파편 일곱개가 박히고 갈비뼈가 골절됐으며, 양쪽 고막이 모두 파열됐다. 이씨는 "밤마다 그 때의 일이 생각나 짹짹 놀라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문씨(52)씨는 폭탄테러가 발생했을 당시보다 테러 이후 12시간 동안 벌어진 불안한 상황 때문에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문씨는 "충소리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혼란 속에서 버스에서 빠져 나왔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차에 실려 3시간 동안 어디론가 향했는데 테러범에게 납치당하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문씨는 "어제 밤에도 10번 이상 깬다"면서 "광야에서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하는 불쾌한 꿈을 꾸다"고 털어놓았다.

노모(56)씨도 "아내가 다리와 얼

굴 등 18군데 파편이 박혀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이집트 병원에서는 숨 같은 걸로 상처를 닦아주는 게 전부였다"면서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말은 통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괴감까지 든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차모(57)씨는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병원에 대기하는데 가족점퍼를 입고 총을 맨 이집트인들이 오갔다"면서 "그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서 불안으로 떨떨 떨었다"고 회고했다.

안양샘병원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당시 대원들을 돌보던 경험을 되살려 외상 치료 뿐만 아니라 PTSD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병원에 도착한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하며 미술·음악·심리·

화해 치료 등을 받고 있다.

박상은 원장은 "진천중앙교회 성도 대부분이 '왜 하필 나인가'라는 생각에 심리적 불안과 무기력감, 우울증,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때의 치료 경험을 되살려 심리적, 정서적, 영적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정도가 경미한 2명은 퇴원했으며, 부상이 심한 김동환 목사 등 6명은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경원 한국기독교교육회협의회 대표회장은 "성지순례 중 불행한 일을 당한 진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세성협 제26대 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취임식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이하 세성협) 제26대 대표회장 정인찬 목사의 취임식이 21일 방배동 백석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인찬 목사는 취임사에서 "이제 영성신학을 정립하고 성령을 바로 정립하여 성령의 새 불길 일어나야 한다. 교단의 분과와 분리된 것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지켜 연합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도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라며 "이 땅에 다시 한 번 2017년 장대현교회 성령강림 110주년과 종교개혁500주년의 성령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새 역사 하 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성령으로 새일을 행하라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모토로 삼아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각 사람의 마



에 한국교회에 세성협에 임하여 새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취임식은 본부장 임병재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서석근 목사의 기도, 증경대표회장 김용완목사의 취지문 낭독, 테너 임승중 교수 스포라노 김은경 교수(백석대학교)의 찬양, 부회장 김용덕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예장백석총회 성경총회장 정영근 목사가 예식장 37:1-14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는 지도자"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세성협은 초대회장 고 김우영 목사를 필두로 1989년부터 26년간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감당해왔다. (기사제공: 세성협)

이집트 테러 희생자 장례일정 모두 마쳐

고 김진규 목사와 김홍열 권사의 발인예배를 끝으로 이집트 테러 희생자 3명의 장례절차가 오늘 모두 마무리됐다.

고 김진규 목사의 발인예배는 오늘 오전 7시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진행됐으며, 유해는 경기도 안성 유도피아추모관에 안장됐다. 또 고 김홍열 권사의 발인예배는 오늘 오

전 8시 30분 충북 진천읍 백악관 장례식장에서 진행됐으며, 시신은 충북 진천군 공설묘지에 안장됐다.

한편, 고 제진수 집사의 장례는 김 목사와 김 권사의 시신 보다 하루 먼저 도착해 지난 22일 치러져, 이번 테러 희생자 3명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됐다.

최근 크게 나빠진 상태다. 2011년 무바라크 정권이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고 지난 해 무르시 정권까지 실각하면서 이에 반발한 이슬람 무장 세력이 시나이반도로 옮겨갔다.

하지만 시나이 반도를 찾는 교인들의 발걸음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국내 성지순례 여행은 크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따라가는 터키와 그리스 등 소아시아 코스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코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코스가 대표적이다.

30여년동안 성지순례를 진행해온 김동권 대표(CBS투어)는 "우리나라 성지순례단의 6-70%는 출애굽 코스를 선호한다. 출애굽 지역을 따라 가는 순례단은 거의 다 시나이반도(시내산)를 가고 싶어 한다"면서 "이집트 사태 이후 외국에서는(시나이반도) 잘 안가는데, 국내 기독교 순례객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2012년 이후 시나이 반도를 '여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가급적 여행일정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해왔다.

인성교육엔 성경말씀이 교과서 인성교육전문가들, 올 교회학교 키워드로 제안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불만으로의 원인은 오랜 기간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성에 대한 교육은 미미한 상태다. 이것이 한국 인성교육의 현주소다. 이에 인성교육 전문가들은 올해 교회학교의 키워드로 '인성교육'을 제안했다. 세마교육학회 인성교육연구회 이영조 회장과 좋은나무성품학교 이영숙 대표에게 교회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왜 필요한지 들었다.

지난달 열린 2014년 세마교육학회 동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이 회장은 '인성과 자녀교육'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지표와 세계 최악의 인간지표를 갖고 있다"며 "최고의 경제지표는 물질의 문제이고 최

악의 인간지표는 마음과 정신세계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국사회 공동체의 참 모습을 찾으려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며 21세기에는 물질중심에서 인본주의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자녀들의 성공과 사람 됨됨이를 위해 인성교육도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성은 성경말씀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다며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 결국 인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제시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근거로 창세기의 천지창조(장1:24-27)를 제시했다.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골2:5)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성경말씀과 도덕 등 인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지론이다.

지난해부터 학교교육에 인성(성품)교육을 접목한 좋은나무성품학교 이영숙 대표도 교회에서의 성품교육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가차원에서 무너지 가는 학교교육의 원인을 인성교육으로 진단하고 인성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인본주의 철학 속에 만들어져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는 교육이며 하나님이 없는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성교육으로는 진정한 인성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난다고 우려했다.

테러지역 시나이반도, 성지순례 선호 1순위

[CBS] 이번 폭탄테러가 발생한 시나이반도는 이집트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치안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국내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선호하는 성지순례 코스로 꼽히고 있다.

진천중앙교회 교인들이 사고를 당한 시나이반도는 이집트의 북동부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내산이 바로 시나이반도 남부에 위

치해 있다.

또 시나이반도는 사막지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기까지 40년을 생활한 광야로 알려져 있다.

구약학을 전공한 서울신대 권혁승 교수는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약을 맺은 장소이자 예배처소에 대한 지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시내산은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설명했다.

교인들에게는 꼭 찾아가고 싶은 성지순례 코스지만 이곳의 정세는

최근 크게 나빠진 상태다. 2011년 무바라크 정권이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고 지난 해 무르시 정권까지 실각하면서 이에 반발한 이슬람 무장 세력이 시나이반도로 옮겨갔다.

하지만 시나이 반도를 찾는 교인들의 발걸음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국내 성지순례 여행은 크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따라가는 터키와 그리스 등 소아시아 코스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코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코스가 대표적이다.

30여년동안 성지순례를 진행해온 김동권 대표(CBS투어)는 "우리나라 성지순례단의 6-70%는 출애굽 코스를 선호한다. 출애굽 지역을 따라 가는 순례단은 거의 다 시나이반도(시내산)를 가고 싶어 한다"면서 "이집트 사태 이후 외국에서는(시나이반도) 잘 안가는데, 국내 기독교 순례객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전했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h3>		<h4>뉴욕갯세마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막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p> <p>Tel. (718)358-6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막기도회: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세막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기도회: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p> <p>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세막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p> <p>Tel. (917)733-3387, Fax. (516)883-1961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com</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 일 예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세막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461-2810(Fax 겸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막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4>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세막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8)461-7835, Fax.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p>	<h4>뉴욕중부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막기도회: 오전 5:45(월-토)</p> <p>Website: nyi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p>	<h4>뉴욕초대교회</h4> <p>담임목사: 김승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WM(영어)예배: 오전 1:30 최영성경말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막기도회: 오전 5:50(월-토)</p> <p>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막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창성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연회: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통아일랜드성결교회</h4> <p>담임목사: 김석형</p> <p>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세막기도회: 오전 6:00</p> <p>www.gospell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h4>에벤에셀선교교회</h4> <p>담임목사: 최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579-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y.us/</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p> <p>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h4>중부뉴저지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원호</p> <p>주일예배: 오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h4>린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막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p>	<h4>린즈한인교회</h4> <p>담임목사: 이규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절기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any.org</p>	<h4>한마음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미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막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h3>	<h4>갈보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웅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막기도회: 오전 5:30(화-금) 세막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1-9197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h4>덴버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형만</p> <p>주일예배: 오전 11:00 EWM(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p>	<h4>몽고메리교회</h4>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h4>벅스카운티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풍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h4>벨렐교회</h4> <p>담임목사: 진용태</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전 11:45 EWM(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막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h4>보스턴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세막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생예배: 오후 1:30 종교개혁 210년(한): 오전 11:45 영 어, 유년노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xkinton, MA 01748</p>
<h4>살롱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고등학교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08(팩스겸음)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h4>새시온침례교회</h4>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h4>시애틀평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p>	<h4>알칸사 제자들교회</h4>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막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ies.com</p>	<h4>앵커리지얼린문교회</h4> <p>담임목사: 유계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h4>엘파소얼린문교회</h4>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h4>영생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h4>온누리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h4>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5:30(화-토) 세막기도회: 오전 6:0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h4>주예수교회</h4>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세막기도회: 오전 6:00(월-토)</p> <p>www.jl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h4>큰무리교회</h4> <p>담임목사: 나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막기도회: 오전 5:30 www.josaphvision21.org 매일전도(7시) (월-토)</p> <p>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h4>타코마 삼일교회</h4>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막기도회: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p> <p>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h4>타코마새생명교회</h4>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어)</p> <p>Tel. (253)536-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h4>타코마 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수병</p> <p>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세막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3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h4>템피파조교회</h4> <p>담임목사: 윤정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어/한)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p> <p>www.kkcca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3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h4>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조진보</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찬양: 오전 11:00 영인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막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kcp.org</p>	<h4>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선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막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후원회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70 Fax. (718)886-4000</p> <p>www.segyo.org</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h3>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구</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6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선교의 창 (2)

선교와 선교사(A missionary 宣教師)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현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선교의 대중화 시대가 되었다. 선교에 열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사역자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여러 모양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립되지 못한 문제들도 속출하고 있다. 그 중 하나 선교와 선교

사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선교사(A missionary 宣教師)는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 택정함을 입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정한 훈련과정을 거쳐 타 문화권이 특정한 영역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통계에 의하

어지는 둘 하나의 파문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수 전체로 퍼지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당사자이든 파송하는 기관이든 신중하며 정직해야 한다. 선교사는 공인되며 교회의 일원이다. 따라서 아무리 선교적 열정이 불타나 해도 절차와 질서를 무시한 채 영적 공동체에서 이탈해

행위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이를 의사라고 부르지 아니한다. 의사는 국가가 지정한 일정한 교육과정과 시험을 거쳐 공식적인 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해보라. 만일 우리 사회에 공인되지 않는 의사가 약사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활개를 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며 혼란스럽겠는가?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경구가 되어야 한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헌신자들을 필요로 한다.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각 분야에 전문적 실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는 만일 제사장주의이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존귀하며 평등하다. 그러기에 주님의 평가는 결코 외적 신분에 있지 않다. 간관이나 계급장에도 있지 않다. 선교에 있어 선교사 이름으로 사역했다고 상이 큰 것도 아니요, 일반 신분으로서 참여했다고 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교에 열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신분으로서 이를테면 집사나 권사로서 장로나 목사로서 헌신하면 된다. 굳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포상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런 것이 아름답다. 여자가 필요 이상으로 화장품을 덧칠 덧칠 바를 때 오히려 역겨울 수 있다. 그저 대외적 이미지나 계산된 목적을 위해 선교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나아가 이는 사역현장을 어렵게 하며 자기에게도 오히려 부덕을 남겨 뒤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능력자보다 바른 자를 쓰신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To be)적 실존이 과업(To do)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만일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라면 아무도 선교사가 아니다.” (Stephen Neill)

사에 관한 혼선이다. 요즘은 교회에서 선교란 말이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교와 무관하면서 남선교회 여성교회라 지칭하는 것이 바른가? 더욱 선교사란 직함도 옛날과 달리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깊은 영적 고찰과 공동체의 인준 없이 쉽게 선교사란 명칭을 부여하거나 혹은 자칭하고 있다.

물론 선교사는 몇몇 특별한 단체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선교에 직,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모든 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광의적 이해는 교회의 질서와 선교사역 전선을 혼탁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선교학자인 Stephen Neill에 의하면 “만일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라면 아무도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학자에 의하면 선교와 선교사를 좁은 의미에서 특수적 영역으로 해석했다. 어느 것이 맞는가? 둘 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 선교 장래를 위해서는 협의적 관점에서 선교와 선교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면 2013년 12월까지 255개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정식으로 파송 받은 한인 선교사수는 169개국에 25,745명이다. 이 외에 개교회 차원에서 파송한 자와 소속기관이 없이 자칭 선교사라고 하며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 수 있다. 이 수는 어림잡아 6000-7000명 정도이다.

문제는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이단들을 포함해 양의 털을 쓴 사냥 목자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 이들은 공식적 기관을 통해 파송 받은 자보다 독자적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더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은둔하며 현지 문화나 타 선교기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독불장군식 행동을 하기 일쑤다. 이러한 좌중우돌(左衝右突)식 활동은 연합전선을 꺾어 할 사역현장에서 다른 사역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는 선교사와 한국인의 대표 격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 올 뿐만 아니라 조국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선교지 문을 닫히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잔잔한 호수에 떨

서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교회란 본시 나 홀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통치를 받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이다. 한 몸이 여러 기관이 있듯 모든 성도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일원이다. 이 점에서 선교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급한 성정을 지닌 바울도 독자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안디옥공동체의 파송을 받았다. 아무튼 선교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 일정한 훈련과정을 통해 교회에서 인준되어야 하며 사역적으로 사명감을 가진 자라야 한다. 물론 제도권 안에 있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검증하며 연합하게 되고 문제발생 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다.

선교와 선교사! 선교는 보통명사이고 선교사는 고유명사이다. 이는 선교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참여한 자들을 모두 다 선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의료업계와 비슷하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간وص사, 약사, 행정요원 등 다양한 사람이 각기 자기 전문성을 합쳐 선을 베푼다. 이때 의료

(5면에서 계속) 성경에서 언급된 스포츠는 마라톤이 유일하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여 오로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을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갈 것을 말하고 있다. 1세기는 로마가 흥왕해 정치, 군사적으로 지중해 일대를 장악했다. 당시의 로마는 스포츠에 열광했다. 수많은 스타디움에서 경기에 열광했다. 이런 스포츠 집현현상은 역사가들이 역사의 말기현상이라고 말하는 3S(Sex, Speed, Sports) 중에 하나이다.

사도바울은 스포츠 정신을 신앙과 연결하여 교훈했다. 투쟁하여 이기고 지는 그런 승리에 집착하는 승리가 아니다. 바울은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했다. 성경은 마라톤에서 기록의 빠름과 느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좌우 결눈질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포대를 향하여 믿음을 지켜 나가는 신앙의 일관성, 즉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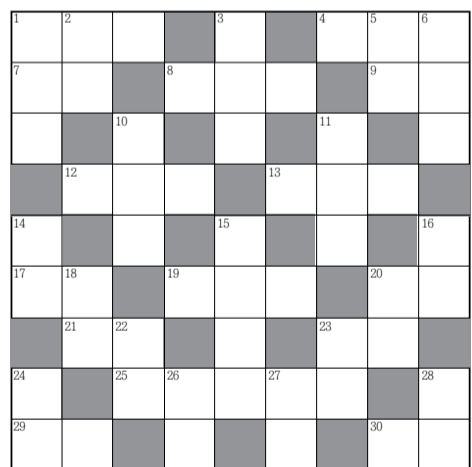
성경은 운동 자체를 금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에도 유익이 있다고 했으며(딤후4:8)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인의 삶을 운동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비유로 가르치기도 했다(고전9:24-27). 스포츠는 우리의 생활의 일부이다. 스포츠를 죄악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스포츠의 이상화해서 이상승배를 하거나, 또는 스포츠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신앙생활도 목회도 것을 성취했는가? 금메달을 땀는가? 1등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일 것이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충성했는가?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은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두 달란트에도, 최선을 다한 다섯 달란트에도 주어진 동일한 칭찬이 시기 때문이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십자말 • Cross Word (29)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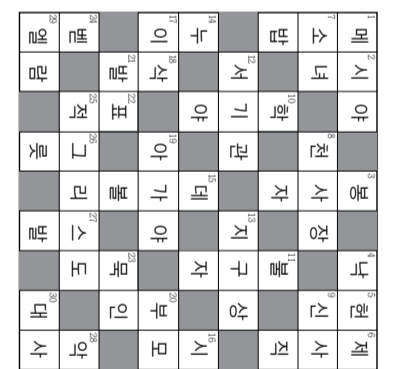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 구세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요1:41).
-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레22:18).
- 나이 어린 여자 아이(마5:42).
-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인간세계로 내려오는 사자 중 우두머리(살전4:16).
- 귀신을 모신 사람(롬2:22).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OOO들과 바리새인들이여...(마23:15).
- 사람이 살고 있는 땅(눅21:35).
- 농작물을 거둔 뒤에 땅에 쳐져 흩어질 지스러기(창41:5).
- 헬라의 남반부이며 예수 시대에는 로마가 점령해 한 도를 만들고 갈리오 총독이 치리했다(행18:12).
- 아버지와 어머니(창2:24).
-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릴(시78:2).
- 모르는 척하고 슬며시 말없이 승인하여 중(렘14:16).
-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정복을 당할 그리스도 반대자(요일2:18).
- 셀의 장자(창10:22).
- 큰 일(시7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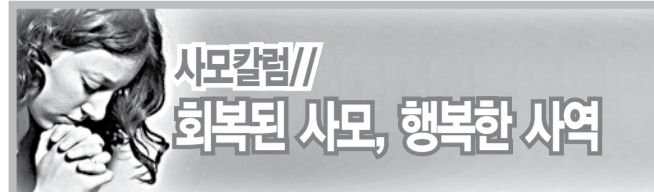
<세로 푸는 열쇠>

- 시므온 사람의 한 방백(대상4:34).
- 가까이 있어 시중드는 여자(에4:1).
- 웃어리를 받아들여 섬기는 사람(사61:6).
-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함(출32:29).
- 제사장의 직부(출31:10).
- 시므온의 아들(대상6:30).
- 몸의 한 부분이 온전치 못한 자(마18:8).
- 남자의 같은 조상 밑에서 한 항렬로 난 여자(대상7:18).
- 갈릴리해 동방 요단강 좌우에 있는 지방(마4:25).
- 남편의 어머니(룻1:14).
- 머리털을 깎음(렘47:5).
- 남의 아내(창24:36).
- 겉으로 나타난 형적(사19:20).
- 가만히 속으로 밟(욘15:4).
- 이곳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함(창12:8).
- 물건을 담은 제구의 총칭(렘18:4).
- 아라비아의 성읍(창10:30).
- 주악에 종사하던 한 벼슬(시68:25).

십자말 정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권베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31)947-8919, HP. (02)436-5770 서울시 금천구 금문동 870-10호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금란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학교: 오후 9:00 Tel. (062)523-8491~4, Fax. (062)522-4834 500-170 경교광역시 북구 문암동 936-1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정동 1418-1, (812-824)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이교목부)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 새벽기도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강동3동 330-5, (15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젊은이를 위한 새벽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성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842-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www.seongsil.or.kr Tel. (82)2-999-9998, Fax. 9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330-5, (154-830)	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정동 1418-1, (8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애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박사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성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2)942-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서지구 죽전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사택(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7길 29(남산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2-2길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로 415 www.yang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서영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금요성경학교: 오후 9:30 Tel. (02)942-6881, 사택(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jung-jeong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서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사택(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8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2-2길 146-7
뱅크비발리데이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00 수요일예배: 오전 7:00 금요성경학교: 오후 7:30(30분) 금요성경학교: 새벽 7:30, 9:00, 10: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부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양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주일3부예배: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학생: 오전 9:30(주말)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m@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ón-PARAGUAY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8 사모의 사역 가꾸기(1)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얼마 되지 않아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싸우느라 힘이 들었을 뿐 사역자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평판이 좋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사역하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학교 졸업생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여성목사제도도 여기저기에서 통과되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사역의 범위가 매우 넓어짐에 따라 여성목사의 목회도 이제는 남성목회자들을 능가하는 경향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설교도 풍년, 세미나도 풍년, 모든 문화시설도 풍년입니다.

특히 교회성장학이 폭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풍성합니다. 선교 100년이 훨씬 지나가면서 3대 목

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없는 처지였기에 혼자만이 끙끙거리며 풀 뿐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때의 상담내용들을 살펴보면 목회자가 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을 뻔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목회자와 함께 사는 사모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격에 병이 들어 도저히 목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해도 겉으로 표출할 수 없어 사모는 병어리 냉가슴으로 교인들을 속여야 했던 일들, 남편의 바람기를 막아내어 교회에 어떤 악영향도 끼치지 않으려고 참아내다 그만 정신적인 병까지 얻게 되었던 사모들, 그 당시 어느 정신병원 원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환자들의 절반이 사모들이지만 발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쉬쉬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주의 사명을 받았기에 어떻게 주의 사명자의 길로 나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역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시대에는 사모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생활 경제가 턱없이 부족하여도 취직이라는 것은 금지사항처럼 인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목회자의 가정은 돈에 한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사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사모의 길 자체도 어렵지만 경제적 인 문제는 사모 자신도 딸자식을 목사에게 시집보내는 것을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유학을 보내는 목사님들은 자녀교육에 신경을 썼기에 많은 훌륭한 자녀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미국 구석구석에서 인재들이 배출되어 이제는 이민목회자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사역이 하나의 생활 대책이나 방편으로 바뀌어져가고 있어서 젊은 사역자들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목회자 사모 한맺힘 풀 길 없어 정신병까지 급변하는 현 시대에 방법은 많지만 적응 힘들고 혼란 심해

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4대 5대 6대 7대까지 크리스천가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 및 사역을 아주 보람있게 잘 하는 이들도 주변에는 즐비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사모들의 사역 가꾸기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젊은 사모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이때에 과연 그들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할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옛날 어머니 시대에는 가난과 싸우면서 목회자의 아내로서 사명 다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눈물로 밤을 지내던 사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이 거름되어 지금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 셈입니다.

사모들의 한 맺힘. 그것은 한국교회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지방으로 가면 아직도 그 눈물을 흘리는 사모들이 숨어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에 비하면 많은 발전과 해방을 얻은 셈입니다. 사모의 자리매김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모들을 위한 세미나 및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페북 및 카톡으로도 사모들의 속풀이가 잘 되어가고 있는 셈이지요.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에 시작된 사모를 위한 전문상담전화로 다시 생각해봅니다.

1980년대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모를 위한 “평화의 전화”를 시작할 때는 사모들을 위한 상담기관도 없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생명의 전화 한 대만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모들의 한맺힘을 아쉬운 대로 공공기관인 생명의 전화에 의존하던 시대에 탄생된 평화의 전화상담기관은 사모들의 목을 추겨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의 한을 들어주어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상담내용

남편이 아직 신학공부를 하고 있는 사모들 즉 예비사모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할지 매우 불안하고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암담해진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많은 길이 있기에, 너무 많은 방법이 있기에 오히려 당혹스럽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마치 바닷물이 범람하는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젊은 사모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를 생각해봅니다.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눈물로써 거름되어 주셨는데 날로 약해지는 시대에 젊은 사모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주어야 할런지요. 실상가상으로 성도들의 가치관은 마구 변하고 모든 문화행위도 급변해가기에 더욱 더 사역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1세사역자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젊은 사역자들을 위해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1세대들이 가고 다음세대를 이어가야할 젊은 사모들에게 주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겠습니다.

1세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음세대에게 소개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자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사59:21).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찬양과 기도 (사63:7-19) 찬506장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종말시대를 지나는 성도는 두 가지를 힘써야합니다. 첫째, 찬송해야합니다(1-14). 선지자는 역사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흥해도와 가나안 정착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의 절대 사랑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10). 반역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그들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하십니다. 둘째, 기도해야합니다(15-19).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송하는 자는 동시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사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기업을 잇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부자관계의 언약을 근거로(16) 배은망덕하여 비참하게 된 유다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찬송과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합니다.

화 요셉의 꿈 (창37:1-11) 찬542장

요셉의 꿈은 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 꿈의 샘플입니까? 첫째, 하나님에게서 나온 꿈이기 때문입니다(5). 그가 꿈을 마음에 품고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일시적인 꿈이 아니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어주신 성령의 이상이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행2:17).

둘째,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꿈이기 때문입니다(7-8). 열한 쟁단들이나 해와 달 열한별 꿈은 가족, 가문, 애굽을 책임지고 신정(theocracy)을 세우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 받은 사실을 증 거합니다. 그는 요셉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셋째, 남의 꿈을 해석하는 은사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10). 성령의 꿈으로 총명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수 요셉의 임마누엘 (창39:1-23) 찬456장

요셉의 고난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첫째, 인격이 변화했습니다(7-18). 형님들의 시기와 미움을 유발한 그의 참소하는 모난 인격이 깎여져 갔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을 통해 그는 겸손과 견디는 인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둘째, 사명이 구체화했습니다(9-23). 그 고난은 그를 점점 더 사명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 자체가 자기 사명을 뚜렷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습니다(2,3,23). 요셉이 모든 일이 형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경험은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화하는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우리 가정은 요셉의 복을 얼마나 누리는지 살펴봅시다.

목 하나님의 섭리의 손 (창41:41-57) 찬461장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일하심을 보인 본문에 우리는 어떤 증거를 발견합니까? 첫째, 바로의 꿈을 사용하셨습니다(1-13). 애굽의 한 군주의 꿈은 요셉이 처리자가 돼 언약 백성이 큰 민족으로 자리나는 발판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미줄같이 얽혀진 사건들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자상하심을 보아야 합니다(롬8:28). 둘째, 애굽의 흉년과 풍년을

허락하심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었습니까(32-33). 자연해택과 재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주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왕상18:1). 셋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나라를 보여줍니다(37-40). 바로는 흥왕하는 세상통치로 만족했지만 요셉은 하나님나라의 왕성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봅시다.

금 문제의 해결방법 (왕하4:1-17) 찬278장

본문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야합니다(3). 내게 있는 오병이어, 기름 한 병 그리고 먹고 죽을 한 개의 떡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둘째, 주께 드릴 때 일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수납해야 합니다(16). 상상을 초월한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일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

의 손을 믿고 큰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셋째, 최선의 선행을 통해 일하십시오(9).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배려는 난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공행(선행)이 환난을 이깁니다(약2:13).

토 환난 날의 소망 (왕하6:24-7:2) 찬241장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소망을 가집니까? 첫째, 비참한 현실을 인정해야합니다(26). 비참을 목도한 왕은 벼슬을 입고 회개할 정도가 됐습니다. 엘리사의 사역만큼 위상을 섬기는 백성의 마음은 돌이키기에 너무 느렸습니다. 현실의 궁핍을 통해 주의 손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둘째,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합니다(29). 인육을 먹은 염기적 행각은 비참자였었습니다. 도둑질할 것을

경계해 지나친 궁핍 피하기를 구한 아굴의 간구는 이런 정황을 두고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죄 못지않은 때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불신앙을 경계해야합니다(7:2). 왕이 신뢰하는 군대장관의 불신앙은 주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말씀제일주의의 신앙을 파수함이 급선무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4.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Dates: May 16(Fri) ~ 19(Mon), 2014
- Place: Toronto, Canada

3. Examination Subjects

-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OT Exegesis Text - Leviticus 21:1-9
- NT Exegesis Text - Luke 16:19-26
- Thesis Topic - Plagiarism and integrity
- Sermon Text - ① NT: 1 Corinthians 15:1-1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all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4.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4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0-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6-20) through Rev.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Se Young Han / Address: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E-mail : syhan91@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amuel Heo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e Young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quires in English :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총회장 : 엄영민 목사 서기 : 고택원 목사 고시부 부장 : 허상희 목사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베데스다대학교 찬양선교단 창단 및 열린음악교육원 개원

음악으로 하나님 기쁘시게...마음의 여유도 갖도록

베데스다대학교 산하 그레이스선교회(대표 김승기)가 찬양선교단 창단 및 열린음악교육원을 설립하고 개강을 앞두고 있다. 김승기 대표는 베데스다대학교가 이민사회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음악을 통한 선교'라는 컨셉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선교회 김승기 대표를 비롯, 뮤직디렉터 켈빈박, 행정팀장 김지연씨를 만나 사역에 대해 들어본다.



베데스다대학교는 그레이스선교회를 조직하고 두가지 사역인 찬양선교단 사역과 열린음악교육원 사역을 실시한다. 사진은 그레이스 선교회 김승기 대표(사진 왼쪽), 김지연 행정팀장, 켈빈박 뮤직디렉터

김승기 대표는 베데스다대학교에서 설립한 그레이스선교회 사역은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찬양선교단 사역과 열린음악교육원 사역을 위해 김대표를 비롯, 뮤직디렉터 켈빈박, 행정팀장 김지연, 총무팀장 박수진, 그리고 워십팀장 김한나씨가 수고하고 있으며 본교 음악과 학과장인 조에스터 교수가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찬양선교단은 베데스다대학교 찬양사역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번 양로병원과 홈리스 사역에 투입되는 아웃리치 사역을 찬양선교단이란 이름으로 창단해 보다 효율적인 사역을 하게 됐다. 이 사역을 위해 앨범제작을 하게된다. 또

위치게 되거든요. 특히 이민자들은 삶이 매우 건조합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심심치 않게 접해지는 가정문제 등도 결국 마음의 여유 없음과 메마름 때문에 생기는 것인 만큼 음악을 접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것이니까요.” 김 대표는 “저희학교의 열린음악교육원은 평생교육원 개념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여는 것이예요.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수년전 지역사회를 위해 교육원 같은걸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해져 있다. 강좌는 한 클래스 당 최소 5명부터 최대 10명까지이며 수강료는 시간당 10달러, 수업은 강좌별로 2시간씩 진행된다. 켈빈 박 교수는 “버클리음대를 졸업하고 색서폰 연주자로 활동하던 베데스다대학교 음악과장을 만나 학교교수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교육원이 설립취지가 마음에 와 닿아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매우 보람된 일이며 음악인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하게

3월 15일 개강...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 클래식과 현대음악, 성악, 악기 총망라

한 찬양선교단은 매주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찬양사역을 하게 되며, 의료선교나 단기선교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3일 찬양선교단 창단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간다.

찬양선교단은 본교 교수들이 지도하고 있다. 우선 보컬트레이너로 김섭리 교수, 전승철 교수, 구현화 교수, 권영대 교수, 박혜수 교수, 바이올린 박윤재 교수, 키보드 김경민 교수, 베이스 종민석 교수, 색서폰 켈빈 박 교수, 드럼 백정열 교수, 편곡 브랜던 정 교수 등이 수고해 주고 있다.

찬양선교단 사역과 함께 시작되는 열린음악교육원은 오는 3월15일부터 매주 토요일 강의가 있게 된다. 베데스다대학교가 열린음악교육원을 설립하게 된 것은 음악이 주는 유익 때문이다.

김승기 대표는 “음악은 메말랐던 마음을 적셔줍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 같은 사업현장에 있다 보면 사람이 메말라지고 성격도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음악을 하다보면 메말라지는 마음이 적셔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이 부드러

사업에 신경쓰다보니 이러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대학교의 향후 방향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다보니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 학교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려 열린음악교육원 사역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열린음악교육원을 통해 찬양사역자들을 배출하며 그들 역시 찬양선교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 대표는 음악교육원에서 양성된 청소년들 역시 유스찬양선교단으로 구성해 찬양선교사역으로 이끌어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1기 찬양단원을 모집 중에 있다. 인터뷰는 3월 7일 오후 1시이며 장소는 교내 LVN(B)이다.

한편 열린음악교육원에 입학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물론 6-70대 분들도 입학이 가능하다. 자격은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약기를 전혀 다루지 못해도 입학하는데 문제 될 것이 없다.

음악교육원은 12주 과정으로 열리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클래스별로 시간대가

생각되며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눠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고 말했다.

열린음악교육원의 강사진으로는 바이올린 주일엽 교수, 크로마(오토)하프 최윤순 교수, 풀룻 이윤신 교수, 색서폰 켈빈박 교수, 베이스 클래식 기타 켈슨 교수, 드럼 김효진 교수, 지휘 주호 교수, 키보드 김현경 교수, 보컬 김한나 교수가 담당한다.

김승기 대표는 열린음악교육원에 입학하는 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에서 음악을 하는 분들 상당수가 크리스천들이고 저희학교가 크리스천학교인만큼 음악적인 재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찬양선교단 가입 및 열린음악교육원 입학 등에 대한 문의는 (714)683-1210이며 문의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다.

(박준호 기자)

투고 칼럼

조항석 목사(뉴저지 뿌리깊은교회 담임)

김연아 처럼

아이티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엔 쇼트프로그래밍을 일등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카톡으로 어느 분이 전해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스럽고,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은메달 했다는 소식을 듣고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첫날 힐링했다가 둘째 날 더 상처가 났다더니, 그 말이 실감났습니다.

몇 년 동안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전세계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상이 되어있던 젊은 선수가 은퇴하는 무대여서 모두들 다시 한 번 금메달로 영원한 여왕으로의 재위를 바라던 터였습니다.

아쉽고, 원통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에 붙어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다시 채점하라는 청원에 1백7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고도 하고 미국 방송들도 압도적으로 김연아를 지지하면서 강력히 채점에 의문을 표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연아 선수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실수는 없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내가 할 건 다 했

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만족한다”며 자신은 이제 자신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은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지를 빙판 안팎에서 보여준 김연아 선수는 결보기만이 아니라, 진실로 성숙한 내면의 아름다움도 보여주고 떠나는 뒷모습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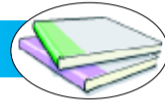
타고난 재능과 함께 부상과 질병의 위험을 무릅쓴 연습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남긴 도전정신과 노력함의 여유는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진정한 여왕의 추억을 남을 것입니다.

할 만큼 다해서 만족한다며 떠나는 김연아 선수가 우리에게 오래도록 아름다운 피겨의 여왕으로 남으리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만큼 했기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오래오래 남기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새책 소개



저자 최낙일 목사

“알기 쉬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해설집”

최낙일 목사(복음문서선교회 회장/LA 동부교회 협동목사)가 평신도들을 위해 ‘알기 쉬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해설집’(도서출판 영문)을 출간했다.

저자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교회 직분자들도 사실적으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신학적인 면과 구원의 복음 진리를 아는 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공예배 때마다 사용했던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시 한번 재천명하고 있다. 본서는 3개의 파트로 나눠 전체적인 해설과 함께 상세하게 구분해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부록 ‘



신학적인 면과 구원의 복음진리 재 조명

재조명하며 일깨워 주고자 본서를 출간했다”고 출간 동기를 말했다.

또한 최 목사는 “사도신경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간추린 기독교 근본교리인 ‘성경은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오함(벧후1:21), ‘예수의 동생녀 탄생(마1:23), ‘예수의 대속의 죽음(롬5:8), ‘예수의 부활(고전15:3-4), ‘예수의 공중재림(계1:7)을 요약한 것이며 십계명은 구약 율법의 요약,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표준’이라고 서문에서 밝히며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본서를 통해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통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적 의미를 알려면 이 고백서의 성경교리를 작성했던 신학자들의 성경 영감교리사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며 신학자 ‘존벌’, ‘윌리엄 브릿지’, ‘존 화이트’, ‘베게스’, ‘에드워드 켈라미’, ‘라이프트’ 등의 말을 인용,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책에 관한 문의는 (213)989-0654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LAMP 선교회

Latin America Mission Project International Mission Society

설립 감사예배

일시: 2014년 3월 5일(수) 오후 8시
장소: 영생장로교회(이용걸 목사 시무)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참가교회

- 대표 이용걸 목사
- 필라델피아장로교회(이용걸 목사, PA)
-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한일철 목사, NC)
- 멕시코한인연합교회(박기영 목사, Mexico)
- 메릴랜드영광장로교회(이상록 목사, MD)
- 올랜도비전교회(김인기 목사, FL)
-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한세영 목사, VA)
- 아순시온한인교회(정경연 목사, Paraguay)
- 포트워스 주님의교회(이상호 목사, TX)
-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김선만 목사, CT)

LAMP 선교회 미국 본부
LAMP international Mission Society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김선만 목사)
300 Chapel Rd. Manchester, CT 06040
http://www.fkpc.org Tel. (860)643-4738

LAMP 선교회 현지센터
Missioinary Gene KIM

KM 10.5 Carretera Merida- Cancun
(Lado sur, Opuesto de Hacienda Teya)
Kanasin, Yucatan, Mexico